

칼빈의 신학과 목회에 나타난
교회성장 연구

지도 박보경 교수

이 논문을 신학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7년 2월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선교신학 전공

석 광 호

석 광 호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주 심: _____ 교 수 인

부 심: _____ 교 수 인

부 심: _____ 교 수 인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2007년 2월

칼빈의 신학과 목회에 나타난
교회성장 연구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선교신학 전공

석 광 호

감사의 글

먼저 본 논문을 완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논문 작성에 있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제자를 염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도하신 박보경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처음 선교의 눈을 뜨도록 해주시고 선교를 전공하기까지 이끌어주신 이광순 교수님, 가르침과 목회를 통해 칼빈을 마음에 새겨주신 이수영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교회성장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시고, 논문을 쓸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마련해 주신 고척교회 조재호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는 교역자들, 특히 논문 쓰는 기간 동안 기꺼이 도움을 주신 장태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금까지 목사가 되기까지 많은 힘이 되어 주신 울산 새중앙교회와 목사로서 넉넉히 설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신 고척교회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부모님, 가까이에서 사랑을 주신 장인, 장모님, 넉넉한 마음으로 힘이 되어준 아내 임기혜,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딸 연우와 아들 윤우에게 사랑과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 1월

석 광 호

목 차

| | |
|----------------------------------|----|
| I. 서론 ----- | 1 |
| A. 문제 제기 및 연구의 목적 ----- | 1 |
| B. 연구방법 및 범위 ----- | 3 |
| II. 교회성장학에 대한 일반적 이해 ----- | 5 |
| A. 교회성장의 개념 ----- | 5 |
| 1. 교회성장의 기원 ----- | 5 |
| 2. 교회성장의 정의 ----- | 6 |
| 2. 교회성장의 형태 ----- | 8 |
| a. 양적 성장 ----- | 8 |
| b. 내적 성장 ----- | 10 |
| c. 통진적 성장 ----- | 11 |
| B. 교회성장학의 이론적 근거 ----- | 11 |
| 1. 교회성장학의 성서적 근거 ----- | 11 |
| a. 구약성서에서의 교회성장 ----- | 12 |
| b. 신약성서에서의 교회성장 ----- | 14 |
| 2. 교회성장학의 신학적 근거 ----- | 16 |
| III. 대표적인 교회성장이론들 ----- | 18 |
| A. 맥가브란의 교회성장원리 ----- | 18 |
| 1. 맥가브란의 교회성장원리에 대한 일반적 고찰 ----- | 18 |
| 2. 맥가브란의 교회성장원리 ----- | 20 |

| | |
|------------------------------------|-----------|
| a. 동질집단원리 ----- | 21 |
| b. 수용성의 원리 ----- | 22 |
| c. 족속운동 ----- | 23 |
| d. 제자화와 완전화 ----- | 24 |
| B. 피터 와그너의 교회성장원리 ----- | 24 |
| 1. 피터 와그너의 교회성장원리에 대한 일반적 고찰 ----- | 24 |
| 2. 피터 와그너의 교회성장원리 ----- | 25 |
| a. 건강한 교회의 살아있는 일곱 표적 ----- | 25 |
| b. 성령의 역사와 은사 ----- | 28 |
| C. 현대에 나타난 대표적 교회성장이론 ----- | 29 |
| 1. 자연적 교회성장의 교회성장원리 ----- | 29 |
| a. 여덟 가지 질적 특성 ----- | 30 |
| b. 여섯 가지 생명체적 원리 ----- | 32 |
| c. 최소치 전략 ----- | 33 |
| 2. 셀교회의 교회성장원리 ----- | 33 |
| a. 셀 ----- | 34 |
| b. 회중 ----- | 34 |
| c. 축제 예배 ----- | 35 |
| IV. 칼빈의 신학과 목회 ----- | 37 |
| A. 칼빈의 신학 ----- | 37 |
| 1. 교회론 ----- | 38 |
| a. 신자들의 어머니인 교회 ----- | 39 |
| b.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 | 40 |
| c. 선택된 백성인 교회 ----- | 41 |

| | |
|---|-----------|
| 2. 삶의 신학 ----- | 42 |
| a. 기독교적 삶의 의미 ----- | 42 |
| b. 기독교적 삶에 관한 주제들 ----- | 44 |
| 3. 선교신학 ----- | 48 |
| a. 종교개혁자들의 선교이해 ----- | 48 |
| b. 칼빈의 선교신학 ----- | 50 |
| B. 칼빈의 목회 ----- | 52 |
| 1. 제1, 2차 제네바 목회 ----- | 53 |
| a. 제1차 제네바 목회 ----- | 53 |
| b. 제2차 제네바 목회 ----- | 55 |
| 2. 칼빈의 교회적인 권징 ----- | 56 |
| 3. 칼빈의 교육 ----- | 58 |
| | |
| V. 칼빈의 신학과 목회에 나타난 교회성장 연구 ----- | 61 |
| A. 칼빈의 신학과 교회성장 ----- | 61 |
| 1. 칼빈의 교회론과 교회성장 ----- | 62 |
| 2. 칼빈의 교회성장원리로서의 묵상과 기도 ----- | 65 |
| 3. 칼빈의 교회성장원리로서의 삶의 신학 ----- | 67 |
| B. 칼빈의 목회와 교회성장 ----- | 70 |
| 1. 칼빈의 제네바 목회와 교회성장 ----- | 70 |
| 2. 칼빈의 교회성장원리로서의 교회적인 권징 ----- | 73 |
| 3. 칼빈의 교회성장원리로서의 교육 ----- | 75 |
| | |
| VI. 결론 ----- | 77 |
| | |
| 참고문헌 ----- | 80 |

I. 서론

A. 문제 제기 및 연구의 목적

2003년 8월 23일 제2427호 기독교보는 “교세성장 제자리, 충격”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2002년 12월 31일 장로교단(통합측) 전체 교인수는 2001년 대비해 1천 1백 28명(0.05퍼센트)증가한 2백 32만 9천 5백 41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교회학교 교세가 큰 폭으로 감소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의 교인수 보고에 있어서 허수가 많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실제적으로는 교회성장은 제자리가 아니라 급격하게 줄고 있음을 진단하고 교회성장위기론이 확산되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2005년 7월 30일 제2521호 기독교보는 “본교단 교세 4% 증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2004년 12월 31이 현재, 본 교단 교세는 2백48만9천7백17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특히 2개의 노회, 1백 80개 교회, 9만4천3백94명의 교인이 증가한 것으로, 교회성장위기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다시 성장으로 돌아섰기에 긍정적인 변화로 받아들여지는 괄목할만한 성장이었음을 말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성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생각해보게 된다.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교단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말보다 ‘하나님 나라의 구현’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 교단 선교 정책 또한 에큐메니칼 선교신학을 내세우면서도 복음주의 선교신학과 에큐메니칼 선교신학의 조화가 이루어진 통전적 선교신학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교회목회에 있어서는 성육적인 목회를 말하고 있다. 여기서 동일한 강조점은 무엇인가? 교회성장이든 선교이든 이제는 수적이거나 양적인 성장보다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한 세상을 향한 복음의 영향력의 확대이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현실은 여전히 교인수가 줄었을 때는 ‘충격’이라는 단어를 서슴지 않고 쓰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여전히 우리 교단은 교회성장을 세상에 대한 영향력 증가 보다는 교회의 외적인 성장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도 ‘교회성장’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인간적인 기교와 기법들로 가

득 찬 ‘버려야 할 과거의 유물’처럼 치부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나 세계 교회와 교회성장학자들은 한국교회가 여전히 수적인 교회 성장에 얽매어 있는 동안 새로운 시도와 발전을 이룩하였다. 대표적인 학자가 피터 와그너이다. 피터 와그너는 전통적 교회성장학자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지금 그는 전통적 교회성장의 원리를 성령론을 중심으로 발전시켜 ‘신사도 개혁 운동’과 ‘신사도 개혁 교회’라는 새로운 교회성장 패러다임 속에서 성장원리와 전략을 말하고 있다.¹⁾

또한 미국 교회들도 윌로우 크릭 교회와 새들백교회를 중심으로 평신도 사역과 소그룹 사역 중심의 건강한 교회 회복을 통한 교회성장을 이루고 있다. 특히 이 두 흐름 모두 정확하고 효율적인 교회 양육 시스템을 운영함을 통해 맥가브란이 강조한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을 구체적으로 교회 현장 가운데 실현하고 있다.

아울러 교회성장을 위한 많은 이론들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고, 많은 목회자들은 이곳, 저곳으로 교회성장을 위한 수단을 찾으려고 부단히 애쓰고 있다. 요즘은 슈바르츠의 자연적 교회성장과 셀교회의 교회성장원리, G-12가 많은 교회들로부터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많은 교회들은 이론들을 교회에 적용하는 과정 속에서 오히려 갈등과 분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한국교회도 분명한 교회성장에 관한 신학을 정립할 때가 되었다. 과거 폭발적인 교회성장의 모델이 되었던 시대는 끝이 났다. 이를 위한 연구와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맥가브란이 말한 “인구증가로 인한 자연적인 증가와 이사로 인한 증가는 있었다. 그러나 개종으로 인한 성장은 미미하였다. 모든 교단들이 정체되었고 또는 실제로 쇠퇴하였다”²⁾는 미국 교회를 향한 우려가 한국교회의 현실이 되고 말 것이다.

2007년, 한국교회는 한국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연 ‘평양 대부흥운동 100주년’이라는 의미 있는 해를 맞이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제 한국교회는 현실과

1) 피터 와그너는 신사도 교회의 특징을 9개로 말한다. 1. 신사도적 탈 교과성(상호의존) 2. 새 영적 권위(목사) 3. 평신도 지도자 양성(은사) 4. 새 유산과 비전 셀(소그룹) 5. 새 예배스타일 6. 새 합주 기도(중보기도) 7. 새 씨앗 헌금(자발 참여) 8. 새전도와 사역 개척(불신자 접촉) 9. 새 능력 역사에 개방됨.

2) Donald A. McGavran, *Understanding Church Growth*, 전재욱, 이요한, 김종일, 『교회 성장이해』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87), 6쪽.

정책에서 일관성을 줄 수 있는 건강한 신학을 배경 위에 교회성장의 의미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회성장학과 이론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교회성장학이 신학 없는 학문, 기독교 역사의 관점에서 역사적인 뿌리가 없는 학문이라는 비판을 해소해야 한다.

특히, 복음의 재발견을 통해 기독교의 새로운 시작을 연 종교개혁사상과의 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물론 종교개혁을 이루어진 종교개혁자들의 사역 가운데 선교와 함께 수적 교회성장의 언급이 미비하다는 비판이 있다. 이 부분 역시 당시 상황을 통해 재조명되어야 한다.

교회가 있는 곳에는 말씀과 말씀의 증거가 있고, 말씀을 증거하고 증거된 말씀을 따라 사는 곳은 곧 선교의 장이 된다. 결국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와 증거된 말씀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통전적으로 성장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기에 종교개혁자 중 장로교의 문을 연 칼빈의 신학과 목회 속에서 나타난 교회성장의 모습과 원리를 연구하는 것은 한국교회의 교회성장을 위한 바람직한 신학과 함께 성경적인 목회를 실천하도록 한다. 특히 세상 속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무엇보다 세대를 넘어 한국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야 하는지 좋은 터전과 방향을 생각하도록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교회성장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등장한 때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나타난 교회성장이론을 살핀 후에 칼빈의 신학과 목회에 나타난 교회성장의 원리들을 찾고자 한다.

생존의 위협 속에서 이루어진 칼빈의 신학과 목회에 나타나는 교회성장 원리들은 분명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한국교회가 신학적이면서도 목회적인 좋은 뿌리를 갖도록 할 것이다. 이 때 한국교회는 수적으로 성장할 때든지, 수적으로 감소할 때든지, 무엇보다 세상에 대한 영향력의 감소를 경험할 때도 다시금 개혁하여 한국교회에 맡겨진 민족 복음화와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힘차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B. 연구방법 및 범위

교회성장을 논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성장학에 대한 일반적 이해가 필요하다. 교회성장학의 기원을 살펴보면서 교회성장의 일반적 정의, 교회성장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교회성장학의 이론적 근거를 신구약 성경 속에서 찾아야 하고, 교회성장학의 배경이 되는 신학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교회성장학의 시작과 함께 시대에 따라 어떤 이론들이 새롭게 등장했는지 보아야 한다. 이 때, 맥가브란과 피터 와그너를 중심으로 정립된 전통적 교회성장이론과 함께 현대에 새롭게 등장한 교회회성장이론들 중 대표적인 이론인 ‘자연적 교회성장’과 ‘셀교회’의 기원과 교회성장원리들을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다.

또한 본 논문이 칼빈의 신학과 목회에 나타난 교회성장원리를 찾고자 함으로 칼빈의 신학에 나타난 교회론, 삶의 신학, 특히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선교신학을 살펴보아야 한다. 이와 함께 칼빈의 제1차, 2차 제네바 목회와 함께 목회의 도구로 사용한 교회적인 권징과 교육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일반적 교회성장의 이해와 여러 교회성장원리에 입장에서 칼빈의 신학과 목회에 나타난 교회성장을 연구하고자 한다. 특히 교회개혁을 중심으로 사회개혁이 이루어지게 되는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칼빈의 ‘삶의 신학’과 ‘기독교적 삶’에 대한 연구는 오늘날 한국 교회가 반드시 필요한 교회성장원리를 제시해 준다.

따라서 본 논문은 II장에서 교회성장학에 대한 개념과 정의와 함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할 것이다. 특히, 교회성장의 형태를 살필 때, 바람직한 교회성장의 형태를 ‘통전적인 형태’라는 단락에서 제시할 것이고, 이와 함께 교회성장의 성서적 배경과 신학적 배경을 살펴볼 것이다. 교회성장학에 대한 일반적 이해를 논한 후에 III장에서 전통적 교회성장학으로 대표되는 맥가브란의 교회성장학과 피터 와그너의 교회성장원리, 현대에 나타난 교회성장이론들 중 대표적인 이론인 자연적 교회성장과 셀교회의 교회성장원리를 살펴봄으로 지금까지 나타난 교회성장이론들을 연구하게 된다. 이 후 IV장에서는 칼빈의 신학과 목회를 살피고, V장에서는 칼빈의 신학과 목회에 나타난 교회성장을 연구하고자 한다. 특히, 칼빈의 ‘삶의 신학’과 ‘기독교적 삶’을 한국교회의 하나님 나라 구현을 위한 교회성장원리로 제시한다.

II. 교회성장학에 대한 일반적 이해

“교회가 성장해야 한다”는 것은 ‘교회성장학’이 등장하기 전부터 이미 기독교 선교역사에 있어서 가장 당연히 받아들여지는 성경적인 명제이다. 단지 “교회성장”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지 않고, 선교를 통한 세계 복음화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표현되었을 뿐이다. 특히, 1974년 세계복음화국제대회에서 윈터 박사가 했던 “전 세계에는 가까운 이웃사람의 전도에 의해 전도할 수 있는 비기독교인들, 다시 말해서 기독교인들과 유사한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약 3억이 있다. 그러나 24억의 인구는 선교사에 의해서만 복음을 전할 수 있다”³⁾는 폭탄적인 선언은 모든 교회로 하여금 세계 선교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회가 성장해야 한다는 현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피나는 선교사역에도 불구하고 선교지에서의 교회개척과 성장의 결여는 선교를 수행하는 교회 자신을 포함한 선교를 수행하는 모든 선교전략에 대한 재고를 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교회성장은 출발하였지만 처음부터 교회를 외형적이고 수적인 측면으로 본다는 비판과 함께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교회성장은 선교에 대한 자기반성과 함께 결실 있는 선교를 이루고자 하는 거룩한 사명을 담고 있다. 그러므로 본 장에서는 교회성장학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먼저 교회성장의 개념과 이론적 근거를 살펴보고자 한다.

A. 교회성장의 개념

1. 교회성장학의 기원

20세기 후반에 큰 영향력을 발휘한 선교운동 중의 하나가 바로 교회성장운동이다. 1955년 교회성장운동의 대현장으로 불리는 맥가브란의 「하나님의 가교」의 출판은 선교학의 새로운 역사, 교회성장학의 문을 열었다. 특히, 당시는 자유주의 기독교의 전성기였기 때문에 더더욱 큰 영향을 주었음을 와그너는 다

3) Donald A. McGavran, *Understanding Church Growth*, 전재욱, 이요한, 김종일, 『교회성장이해』, 110쪽.

음과 같이 말한다.⁴⁾

사회 복음이 그 안에 있었고 많은 노력이 ‘선교’와 ‘전도’라는 용어들을 제정하기 위해 기울여졌다. 선교는 문화 명령의 성취를 의미하였다. 전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을 주고 이슬람교도들 또는 불교신자들을 도와서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은 강압이 아니면 속임수와 같은 것으로 간주되었다. 세계교회협의회가 조직되자 이와 같은 생각들이 신학적인 입장에서 그들의 영적 공허를 감지할 수 있었다. 그는 전통적이고 성서적인 아침으로 돌아가는 선교와 전도의 의의를 회복하기 위해 교회성장을 출범시켰다.

이후 맥가브란은 4년의 연구를 교회성장에 대한 지식을 한층 풍성하게 만들었는데, 그 결과가 1959년 출판된 「교회가 성장하는 법」(*How churches Grow*)으로, 이 책에서 처음으로 교회성장이란 용어가 사용되었다.⁵⁾ 이를 통해 기독교 신앙이 세계적으로 전파되는 역동성을 이해하기 위한 새로운 모델인 ‘교회성장학’을 세상에 소개하였다.

특히 1961년 교회성장연구소 창설과 1965년 풀러신학교로 이전, 1963년 ‘이버빌 회의’, 1964년 교회성장회보(*Church Growth Bulletin*) 발간 그리고 1970년 교회성장의 신학, 사회학, 그리고 방법론을 포함한 『교회성장이해』의 출판은 교회성장학의 지평을 세계로 넓혔다. 이 후 교회성장학은 피터 와그너에 의해 더욱 확고해 졌고, 특히 이론적 틀을 보다 쉽게 해설함으로 교회현장에 더욱 구체적으로 적용되어갔다.⁶⁾

2. 교회성장의 정의

‘교회성장’이라는 용어에는 교회성장학의 창시자인 맥가브란의 결실 없는 선교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이 함께 담겨 있다. 맥가브란은 “교회성장은 하나님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부이신 그분께 대한

4) C. Peter Wagner, *ChurchQuake*, 홍용표 역, 『21세기 교회성장의 지각변동』(서울: 도서출판 이레서원, 2000), 337쪽.

5) 게리 맥킨토시, “미국의 교회성장의 과거, 교회성장학자 맥가브란의 사역을 중심으로” 『월간 교회성장』(2006.1): 28쪽.

6) 위의 책, 28-30쪽.

충실함이 있을 때에 일어난다”⁷⁾고 보았으며, 이 성장의 중심에는 그의 선교 사상과 동일하게 제자화, 즉 “책임있는 그리스도인”이 있음을 말한다. 맥가브란에 의해 열려진 교회성장학은 와그너에 의해 더욱 성숙해졌다. 특히 와그너는 맥가브란의 사상을 이어받아 사회과학적 접근법을 통해 단순한 “교회성장”의 의미를 넘어 다음과 같이 학문으로 정의하였다.⁸⁾

첫째, 일반적으로 내적·외적으로 성장하는 교회들과 연관되고 또 교회성장은 예루살렘 첫 교회성장과 더불어 시작된 유전학적 의미를 갖고 있다.

둘째, “교회성장”이라는 용어는 전도와 선교 사업들과 연관되어 있다. 선교사업은 잃어버린 자들(불신자들)을 전도하여, 교회에 영입함으로써 지역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셋째, 교회성장은 기독교 교회들이 “모든 족속들을 제자 삼으라”(마 28:19, 20)의 하나님의 명령의 효과적인 수행에 구체적으로 관계되는 그 교회의 개척, 배가, 기능, 건강 등을 조사하는 학문이다.

한편으로 사회과학적 이해를 담은 “교회성장학”에 대한 정의와는 달리 조지 피터스는 교회성장을 구속사적 관점에서 질적으로나 양적인 면에 있어 하나님의 사역으로 이해하면서 “교회성장”을 “보혜사”요 “조력자”인 “성령의 은혜로운 사역”과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았다. 특히 그는 성령이 교회성장의 “궁극적 근거”요, “영적 사역은 성령에 의해서만 완성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⁹⁾

크루우니 역시 교회성장에 있어서 성령의 능력을 강조하면서 “교회성장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는 새로운 삶”이라고 정의하는데, 그는 교회성장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것이며, 찾은 영혼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 그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헌신케 하는 것으로 주장한다.¹⁰⁾

결론적으로 교회성장은 하나님의 선교에 올바르게 충성하기 위해서 교회들이 성장하고, 쇠퇴하는 이유를 영적인 요소와 사회과학적 요소를 바탕으로

7) Donald A. McGavran, *Understanding Church Growth*, 전재욱, 이요한, 김종일, 『교회성장이해』, 34쪽.

8) C. Peter Wagner, *ChurchQuake*, 홍용표 역, 『21세기 교회성장의 지각변동』, 403쪽.

9) 이후천, “교회성장운동의 신학,” 『선교와 교회성장 2003』 선교신학 7집 (2003. 11), 48쪽.

10) 최태수, “영적 리더쉽 개발을 통한 교회성장,” 『선교와 교회성장 2003』 선교신학 7집 (2003. 11), 85쪽.

연구하는 학문이다. 여기에는 성서적, 사회학적, 역사적 행동 연구와 함께 오늘날 여러 교회들의 성격, 확장, 개척, 배가, 기능, 건강에 대한 연구가 모두 포함된다.

3. 교회성장의 형태

교회성장학자들은 ‘지상명령과 전도 수행을 통한 교회성장’이라는 기본적인 교회성장학의 전제에 대해 모두 일치한다. 그러나 강조점에 따라 양적성장, 내적 성장, 통전적 성장으로 분류할 수 있다.

a. 양적 성장

피터 와그너는 양적 성장을 “신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들을 자기가 속한 교회에 데리고 나와 교인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개교회 교인 수의 성장을 가져온다”고 정의한다.¹¹⁾ 이 정의는 교회성장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이며, 교회성장을 보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교회성장의 형태인 생물학적 성장, 이동성장, 개종성장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파악해야 한다고 말한다.¹²⁾

첫째, 생물학적 성장은 기독교 가정들에서 출생한 사람들로부터 시작되는 출생성장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창 1:29)는 하나님의 명령이자 창조 질서에 관계되어 있다. 그러나 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볼 때, 생물학적 성장에만 의존하는 교회는 쇠퇴하는 교회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이동성장은 말 그대로 성도가 이주나 특별한 이유로 인해 본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에 등록함으로 나타나는 성장이다. 엄밀히 말해서 다른 교회의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교회들의 성장이다. 특히 맥가브란은 점점 인구들이 도시로 이주하여 도시들이 거대하게 성장하고 있기에 도시 거민들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치는 교회의 사명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한다.¹³⁾

셋째, 개종성장은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 이지적으로 그들의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주께 더하여지는 성장으로,

11) C. Peter Wagner, “Your Church Can Grow”, 권달천 역, 『교회성장원리』, 141쪽.

12) Donald A. McGavran, *Understanding Church Growth*, 전재옥, 이요한, 김종일, 『교회성장이해』, 158-60쪽.

13) 위의 책, 406쪽.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 위임령을 수행해야 한다는 전도와 선교를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교회성장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기초로 하여 많은 학자들이 교회성장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여러 특징적인 교회성장의 형태를 소개한다. 먼저 맥가브란은 교회성장을 내적성장, 팽창성장, 확대성장, 가교성장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¹⁴⁾

(1) 내적성장 : 기존 교회들 내에 속해 있는 소그룹들의 성장, 즉 성경을 알고 기독교 신앙을 실천하는 유능한 남녀 기독교인들의 증가. 그들은 주변인의 신앙으로부터 열성적인 신앙으로 옮겨간다. (2) 팽창성장 : 개체 교회는 비기독교인들을 개종시켜 그들을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할 때 팽창한다. (3) 확대성장 : 개체 교회는 근처나 이웃 지역의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 지교회들을 개척한다. (4) 가교성장 : 교회와 교단은 다른 종족들에게 이르는 길을 발견하고는 하나님께서 놓으신 다리를 건너서 건너편에도 위임받은 자들의 무리를 증대시킨다.

둘째, 와그너는 선교학에서 수용 대상에 따른 분류 M0, M1, M2, M3의 장애물 극복원리 중심으로 발전된 교회성장과 개척과 발전에 따른 유형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¹⁵⁾

(1) 확장성장 : 지역 교회 사역 내 비그리스도인들을 복음화함으로써 개교회를 성장시키는 것. (2) 연장(지부) 성장: 동일 일반 동형 그룹 내 지교회들을 설립함으로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 (3) 교량(개척) 성장 : 다른 문화권에 교회들을 세움으로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 이 성장은 두 가지 하부 사항이 있는데, 하나는 근접한 교차문화운동에, 다른 하나는 문화들 사이에 거리가 먼 곳에 운동을 벌이는 것이 있다. (4) 회심 성장 : 불신자나 타종교인들을 회심시키거나 개종시켜 교회가 성장하는 것.

여기서 맥가브란은 기독교인들이 여전히 전체 인구의 극소수에 불과한 지역들에 대해서는 내적성장의 강조와 함께 팽창성과 확대성장이 강조되지만 다른 세상 지역에 대한 가교성장은 사실상 어렵다고 말한다. 결국 그의 교회성장원리 중심에는 내적성장을 통한 “책임있는 그리스도인”의 양성이 있다.

14) 위의 책, 161쪽.

15) C. Peter Wagner, *ChurchQuake*, 홍용표 역, 『21세기 교회 성장의 지각 변동』, 371-72쪽.

b. 내적 성장¹⁶⁾

피터 와그너는 내적 성장을 “신자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예배, 교육, 상담, 부흥 운동 등은 그 어떤 것이든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만드는 것”으로 정의한다.¹⁷⁾ 특히, 교회 성장의 4대 축을 전도, 제자훈련, 조직, 지도력으로 보았는데, 영적 성숙 원리와 자연스런 성장 원리의 조화를 강조하였다. 또한 영적요소인 전도와 제자훈련을 교회성장의 우선 요소로 보았으며, 교회는 은혜 즉 영적 생활의 전반적인 발전에서 성장해야 한다고 말한다.¹⁸⁾

찰스 싱글터리는 “교회가 실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방법은 질적이고, 양적이며, 또한 유기체적인 성장 사이에 어떤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티펫의 논문의 영향을 받아 유기체적 성장을 말한다. 유기체적 성장은 지도자를 훈련시키고, 교회의 조직망을 보호, 육성하는 것인데, 지역교회가 유기체적이고도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일곱 지표를 있다.¹⁹⁾

또한 켄트 헌트는 교회성장원리에 대한 연구는 질적인 성숙의 문제에 강조점을 두어왔다고 말하면서 제자도의 목표가 양적인 성장을 넘어서 질적인 성숙을 강조하는 교회성장운동의 출발점으로 말한다. 특히 그는 질적인 성숙의 문제의 주안점을 네 가지, ‘말씀 안에서의 성장(성숙성장)’, ‘사랑과 친교 안에서의 성장(공동성장)’, ‘세상을 향한 성장(봉사성장)’, ‘교회숫자에 있어서의 성장(수적성장)’로 제시하고 있다.²⁰⁾

결국 내적 성장은 성령의 역사로 이어진다. 애디 김스는 성령께서는 새로운 회심자들이 교회의 기존 친교 모임 안에 갇혀 지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봉사하도록 하기 위하여, 새로운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신성한 충격을 주시는 분이라고 소개한다.²¹⁾

16) 여기서 내적성장은 맥가브란이 말하는 내적성장과는 다르며, 질적 성장에 가깝다.

17) C. Peter Wagner, “Your Church Can Grow”, 권달천 역, 『교회성장원리』, 141쪽.

18) C. Peter Wagner, *ChurchQuake*, 홍용표 역, 『21세기 교회성장의 지각변동』 421쪽.

19) C. Peter Wagner 편저, *Church Growth State of the art*, 이재범 역, 『교회성장학개론』 (서울: 도서출판 나단, 1987), 125-30쪽. 일곱 지표는 다음과 같다. (1) 기도에 대한 강조 (2) 성령의 자유로운 역사 (3) 성경적인 예배와 사역 (4) 개인과 유기체적 생사 (5) 고도의 평신도 동원 (6) 양적인 성장과 질적인 성숙 (7) 건강한 교회생활.

20) 위의 책, 136-38쪽.

21) 위의 책, 230쪽.

c. 통전적 성장

지금까지 양적성장과 질적성장에 대해 살펴보았다. 서두에 밝혔듯이 ‘지상명령과 전도 수행을 통한 교회성장’에 대한 일치와 양적성장과 질적성장의 균형 속에서 포괄적인 교회성장을 연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교회성장은 단순히 양적성장과 질적성장의 수리적 합으로서의 종합적 성장이 아니라 또 복음전도와 함께 다른 복음의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통전적 성장을 추구하게 된다. 대표적인 학자가 올란도 코스타스(Orlando Costas)이다.

1970년대 올란도 코스타스(Orlando Costas)는 초기의 교회성장학이 지나치게 숫자적 성장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을 비판하면서 교회의 성장은 통전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먼저 교회성장을 ‘수적 성장’, ‘조직적 성장’, ‘개념적 성장’, ‘성육신적 성장’으로 분류하고, 처음으로 ‘통전적 확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교회의 통전적 성장을 숫자적 성장 뿐만 아니라, 유기체적 성장을 포함하는 것이며 또한 개념적 성장과 성육신적 성장이 함께 포함되는 것으로 설명한다.²²⁾

통전적 성장은 순수한 교회성장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는 내적 성장의 축과 그리스도의 명령한 대위임령을 실천적으로 수행하는 복음전도라는 외적 성장의 축이 서로 맞물려 돌아갈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성장이다. 이 중심에는 기존 성도들과 전도된 불신자들을 교회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책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교육의 사역이 존재함을 기억해야 한다.

B. 교회성장학의 이론적 근거

1. 교회성장학의 성서적 근거

와그너는 교회성장학의 성서적 근거를 논할 때, 성경적 교회성장원리 중에 다음 두 가지를 특별히 강조하였다.²³⁾

22) 박보경, “통전적 관점의 교회성장과 전도,” 『선교와 교회성장 2003』 선교신학 7집 (2003. 11), 140쪽.

23) C. Peter Wagner, *ChurchQuake*, 홍용표 역, 『21세기 교회성장의 지각변동』, 408쪽.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과 실행의 궁극적 기준이고, 성경에 모순되는 어떤 교회 성장 원리도 수량적 성장을 일으킨다고 해서 성경적 교회성장원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둘째, 성경에는 교회성장원리들이 체계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지만, 지상명령을 제시하였고, 성장하는 교회들의 원리들과 상황들을 제시하였으며, 성장을 일으키는 사역의 다양한 양상을 묘사하였고, 교회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교회성장연구자는 명백한 원리들의 절대적 본질을 인식하여야 하지만, 포함된 원리들이 더 많은 자료를 탐구해야 할 때 그 자료를 다른 성경구절과 상통시켜 점검하고, 내부적 일관성을 통해 점검하고, 그런 후에 과학적 연구를 통해 확인을 기다려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므로 교회성장학의 출발점과 궁극적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며, 모든 교회성장학의 원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반드시 점검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교회성장은 “교회”의 성장이기에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출발점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의 성장을 말한다. 또한 교회 성장은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에 구약, 신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역사는 교회성장의 역사로 인식될 수 있다.

그러나 아서 그라서는 교회성장의 성서적 근거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지만, 단순히 교회성장의 합리화를 위해 성경이 말하는 원래의 취지와 문맥을 무시하고 근거로 세우는 것을 주의해야 함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²⁴⁾

일부 집단들은 사도행전의 기본적 관심이 교회성장 이론을 기술하고 규정하는데 있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 일부학자들은 사도행전을 21세기 선교실습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선교 모델과 방법들로 가득 찬 “교회성장”교과서로 만들려고 노력하였다. ... 사도행전을 교회 성장 교과서로 생각하는 열성분자들은 누가 원래 교회성장보다는 자유롭게 하는 믿음, 새로운 믿음이 “종교적, 인종적, 그리고 국가적 장벽을 넘어섰다는 것”더 관심을 두었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경향이 있다.

a. 구약성서에서의 교회성장

성경은 세계가 하나님의 의해 창조되었으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으

24) Arthur F. Glasser, *Announcing The Kingdom*, 임윤택 역,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6), 443-44쪽.

며, 종말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의해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됨을 말한다. 이와 같은 과정은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교회도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하나님의 역사, 특별히 성장케 하심 가운데 있으며, 종말론적으로는 새 예루살렘으로 회복되는 과정을 걷게 된다.

그러나 종종 구약성경에 대한 평가 중에 구약은 유대인들과 그들의 민족주의적 운명에 대해서만 다루고, 선교에 관한 메시아 비전이 없다고 말한다.²⁵⁾ 또한 교회의 시작 전이기에 교회성장을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라는 측면에서 보면 구약성경에서 교회성장에 대한 말씀을 찾게 된다. 대표적인 말씀이 창세기 1:27~28과 창세기 12:1~3이다.

먼저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 보편적인 인류의 시작은 창세기 1:27~28에서 볼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인류에게 주신 사명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에게 ‘번성하라’는 사명과 창조 세계를 ‘다스리라’는 사명을 주셨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가 대전제가 된다. 갈라디아서 4:19²⁶⁾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교회’로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교회의 목적임을 말한다. 칼빈도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최후 목적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한다.²⁷⁾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대전제는 ‘번성하라’는 사명이 단순히 수적인 번성이 아니라 수적인 번성과 질적인 번성이 잘 어우러진 통전적인 성장임을 보여준다. 또한 ‘다스리라’는 사명도 힘에 논리에 의한 다스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25) William J. Larkin, Joel F. Williams, *Mission in the Old & New Testaments*, 홍용표, 김성욱 역, 『성경의 선교신학』 (서울: 도서출판 이레서원, 2001), 35쪽.

26) “너희 자녀들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갈 4:19)

27) 프랑수아 방델, 김재성 역, 「칼빈 그의 신학사상의 근원과 발전」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9), 289쪽.

이 땅 가운데 부여하신 창조 질서와 법칙으로,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리라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번성하라’와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사명은 하나님의 백성된 교회의 시작과 함께 주어진 사명임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의 교회의 시작은 창세기 12:1~3에서 볼 수 있다. 이 본문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부르심의 목적이 담겨 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부르심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통해 계획하신 명령과 약속의 말씀이 담겨 있는데,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에서 잘 발견하게 된다. 여기서 “복”은 앞서 얘기한 창세기 1:27~28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과 연결된다. 또한 복의 근원으로서의 사명으로 인해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를 열방, 즉 이방인들에게 전할 기회와 책임을 가지 짐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로서의 본질적인 정의와 사명이 분명히 나와 있고, 특히 오늘날 구약의 3대 기본 선교본문의 첫 번째 말씀인 동시에 구약적인 교회의 시작으로 여겨진다.²⁸⁾

b. 신약성서에서의 교회성장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특히 제자도와 대 위임령은 교회성장의 절대성을 말한다. 예수님은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마 18:20)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최소한 두 세 사람으로도 구성될 수 있음을 가르쳐주셨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어 제자 공동체를 이루시고, 삶과 사역을 항상 함께 나누셨고, 특히 그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훈련하셨다. 예수님의 제자 사역 속에 교회의 원형을 발견하게 된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파송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28) William J. Larkin, Joel F. Williams, *Mission in the Old & New Testaments*, 홍용표, 김성욱 역, 『성경의 선교신학』, 37-39쪽.

경험을 하게 하셨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 전파, 병고침, 이적과 기사, 축귀 등의 사역을 통해서도 따르는 무리가 많아져, 결국 오병이어의 기적의 자리에 남자만 오천명이 따르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교회성장은 무엇보다 마태복음 28:19~20²⁹⁾에서 주신 예수님의 대 위임령에 대한 응답이다. 예수님의 대 위임령은 위대한 복음적 명령으로, 제자 삼는 일, 훈련을 시키는 일, 교회를 설립하는 일이라는 구체적인 과업을 가진다.³⁰⁾ 특히, 세 번째 과업은 예수님의 대위임령에 대한 응답의 방법인 교회 개척에서 성장, 양육 및 재생산이 포함하는 것이다. 왜그녀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³¹⁾

첫째, “모든 족속들에게서 사람들을 제자삼으라”하는 것은 모든 문화(종족)에서 토착 교회 개척을 통해 가장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

둘째, “세례 주는 것”은 새신자를 그리스도 및 교회와 관계 맺게 하는 것이다. 세례는 이러한 과정이 수행되는 교회를 개척하는 결과로 나타난다.

셋째, “제자 삼으라”는 낱말의 초점은 족속들로서, 종족 그룹이나 부족 그룹, 이방인들, 그리고 나라들이다. 한 그룹의 사람들을 전도하는 가장 좋은 수단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즉 교회이다.

넷째, “내게 네게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의 의미는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가르치라는 것이다. 교회에서 지속적인 가르침이 교회성장과 성도의 교제의 근본이 된다.

예수님의 대 위임령에 대한 응답은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이루게 하였고, 오순절 성령 역사를 새로운 시작점으로 초대교회에 나타난 구원받은 사람들이 더해지는 모습(행 2:41; 2:47; 4:4; 6:7; 8:12; 9:31; 9:35; 11:21; 16:14; 21:20)³²⁾은 교회성장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신약성서에서의 교회성장은 누가복음 19:10³³⁾의 예수님이 오신 목적, 즉 구원 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을 구원시키는데 기초를 둔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앞서는 전제는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다니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29)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 28:19-20)

30) 이광순, 『선교학개론』(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3), 27쪽.

31) C. Peter Wagner, *ChurchQuake*, 홍용표 역, 『21세기 교회성장의 지각변동』, 420쪽.

32) C. Peter Wagner, “*Your Church Can Grow*”, 권달천 역, 『교회성장원리』, 264-69쪽.

33)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눅 19:10)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모으시기 위하여 마련하신 조치가 복음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것을 당부하셨다. 더 나아가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종말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는 교회성장의 본질적인 목적을 직접 이루실 것임을 분명히 말씀한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신구약성경은 교회성장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동참할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번성하게 됨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

2. 교회성장학의 신학적 근거

와그너는 교회성장학의 신학적 기반을 이루는 “신학적인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진리” 일곱 가지를 제시한다.

(1) 인간이 태어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2)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시다. (3) 복음 선포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다. (4) 성경은 믿는 사람들에게 유일한 규범적 권위이다. (5) 죄와 구원, 그리고 영원한 죽음은 종말론적 현실이다. (6)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죄와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7)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영혼들을 구원할 책임을 맡기셨고 성령께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 그들을 통해 역사하신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교회성장학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해를 근간으로 하는데, 하나님의 주권,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유일회성, 성령의 은사활동에 관계한다. 이것을 바탕으로 맥가브란은 “탐색의 신학”과 “추수의 신학”을 전개하였다.³⁴⁾

첫째, 탐색의 신학은 씨뿌림의 신학으로, 기독교 선교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을 찾음이 아니라 어디든 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선교라는 것은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순종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어디서든 말씀과 행동으로써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결과들에 눈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건방진 것이며 동료 인간에 대해서는 강압적

34) 피터 와그너는 그의 저서 『기독교 선교전략』에서 누가복음 13:6-9의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 ‘전지의 법칙’을 말하였다. 이 법칙을 통해 선교지에서 오랜 기간 일해도 효과가 없을 때 이동하는 것도 선교 사업의 진도적 효과를 증대시킬 것임을 말한다.

인 것일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무관심한 또는 거부하는 주민들을 복음화하는 사람들이 주로 탐색의 신학을 가지고 있다.³⁵⁾

둘째, 추수의 신학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찾으시고자 하는 정열을 갖고 계시다는 하나님 이해에서 출발한다. 요한복음 3:16절³⁶⁾과 예수님의 대 위임령에서 발견하게 된다. 또한 예수님의 비유, 특히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여인의 비유와 잃은 양을 찾아 헤매는 목자의 비유에서도 볼 수 있다. 복음 선포의 목적은 잃어버린 자들이, 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행전 1:8에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다.

특히 추수신학은 확실히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곳에서보다 화해하는 곳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일임을 분명히 하였다.³⁷⁾ 맥가브란은 추수의 신학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선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경고한다.³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지 않고, 그들을 그의 제자가 되고 그의 교회의 책임있는 성원이 되도록 설득하지 않는 회중은 종교적 클럽에 지나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아닌 것이다. 그의 몸은 그의 영으로 충만하며,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내는 일을 한다. 찾으시는 하나님은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항상 그의 선교를 책임시킬 것이다.

결론적으로 맥가브란은 단순한 탐색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의 잃어버린 자녀들이 발견되기를 원하신다고 말한다. 탐색의 신학은 복음전파의 한 형태이고, 하나님은 추수의 신학을 기뻐하심을 분명히 하였다. 그러나 맥가브란의 추수의 신학은 “교회의 책임있는 성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즉, 추수의 신학은 단순히 선교적인 측면이나 교회 외적인 측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책임있는 그리스도인을 양성하기 위한 교회 내적인 그리고 양육적인 측면을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5) Donald A. McGavran, *Understanding Church Growth*, 전재욱, 이요한, 김종일, 『교회성장이해』, 63-67쪽.

3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 3:16)

37) 위의 책, 77-78쪽.

38) 위의 책, 77쪽.

Ⅲ. 대표적인 교회성장이론들

교회성장학의 발전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는데, 1세대는 교회성장학의 토대를 마련한 사람들로 맥가브란과 앨런 티벳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2세대는 주로 맥가브란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폴러 신학교, 세계선교대학 동료 교수로 와그너가 대표적인 인물이다.³⁹⁾ 1세대인 맥가브란과 2세대인 와그너를 통해 전통적 교회성장학이 학문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맥가브란과 피터 와그너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전통적 교회성장운동은 내적 성장의 도전에 직면했고, 전세계적으로는 교회성장은 침체기로 들어섰다. 이 때, 자연적 교회성장과 셀교회가 성경적이고 건강한 교회를 추구하면서도 성장할 수 있는 대안으로 등장하였는데, 1970년대 중반으로 1980년대 중반에 이르는 시기에 전 세계 각 곳에서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 홍용표는 그의 역서인 『21세기 교회성장의 지각변동』의 옮긴이 서문에서 “최근 한국에서는 독일 슈바르츠의 검증도 거치지 않고 모델도 제시되지 않은 통계상에서만 본 ‘자연적 교회 발달’만이 만사해결책인 양 광고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⁴⁰⁾ 이처럼 현대에 나타난 무수한 교회성장이론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그러나 전통적 교회성장학도 시대에 따라 발전해 왔듯이 현대에 나타난 교회성장이론들 역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다양한 응답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교회성장의 일반적 이해 속에서 1세대인 맥가브란과 2세대인 와그너의 교회성장원리, 그리고 현대에 나타난 교회성장이론들 중 대표적인 이론인 자연적 교회성장과 셀교회의 교회성장원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A. 맥가브란의 교회성장원리

1. 맥가브란의 교회성장원리에 대한 일반적 고찰

39) C. Peter Wagner, *ChurchQuake*, 홍용표 역, 『21세기 교회성장의 지각변동』, 377쪽

40) 위의 책, 6쪽

교회성장학의 문을 연 맥가브란은 그의 저서 『교회성장이해』의 머리말에서 “복음전도는 개인들의 구속과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증가를 목표로 한다. 복음전도와 교회성장에 대한 관심은 기독교 신앙의 필수적인 부분이요, 교회 사역에서 떼어낼 수 없는 부분이다”⁴¹⁾고 언급하면서 복음전도와 교회성장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고 있다.

여기서 그가 말하는 교회성장이 구시대적인 교회주의의 잔재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오히려 교회성장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바람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위임령에 응답하는 교회 활동의 자연적 결과이고 열매인 것이다. 그래서 그는 “교회성장을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충성으로 인식해야만 한다”⁴²⁾고 말한다.

또한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신관과 추수의 신학 속에서 교회성장이론을 전개하기에, 교회성장은 단순히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한 교회성장주의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자라게 하심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임을 말한다. 그러므로 맥가브란은 “기독교인들이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내는 일에 충성함을 보이게 되면 교회는 성장하게 된다”⁴³⁾고 말한다.

특히, 그는 ‘교회성장’의 개념을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는 고린도후서 4장 12절의 말씀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는 에베소서 4장 16절의 말씀과 같은 맥락 속에서 세우고 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져 가고, 자라가는 과정과 새로운 생명을 이루는 과정의 반복 속에서 교회성장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는데, 이 중심에는 ‘책임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핵심적인 단어가 있다. 이 점은 추후에 살펴볼 자연적 교회성장 이론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맥가브란은 추수의 때에 교회성장이 미미하다면 복음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지 못할 것이고, 결국 하나님을 실망시키게 됨을 분명하게 말한다.⁴⁴⁾

41) Donald A. McGavran, *Understanding Church Growth*, 전재욱, 이요한, 김종일, 『교회성장이해』, 5쪽.

42) 위의 책, 31쪽.

43) 위의 책, 32쪽.

44) 위의 책, 96쪽.

2. 맥가브란의 교회성장원리

맥가브란은 그의 저서 『교회성장이해』 머리말 후반부에서 “교회성장은 신학과 충실한 성경적 근거 가운데서 발생한다. 그것은 언제나 사회 속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또한 사회과학들과 크게 의존한다”고 말하고 있다. 즉, 교회성장은 신학과 충실한 성경적 근거 위에서 당대의 사회, 문화, 경제 등의 전반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회성장의 현실화를 위한 사회학적 작업을 도입하였다. 기본적으로 ‘의존성 대 의존성’, ‘개인개종 대 집단개종’, ‘전체 주민의 비례’, ‘성장의 속도’, ‘토착화’라는 다섯 개의 분포자를 통해 교회성장의 복잡성을 도식화하였다.⁴⁵⁾

이를 기초로 하여 그는 앞으로 등장하는 모든 교회성장이론들의 배경이 되는 교회성장원리를 말하는데, 사회학적 기초 원리로서 모자이크 이론을 바탕으로 동질집단원리, 수용성의 원리를 말하였고, 교회성장의 특별한 원리로서 족속운동, 제자화와 완전화이다.

a. 동질집단원리

맥가브란은 먼저 ‘모든 민족’이 다양한 민족, 즉 수많은 조각들로 이루어진 복잡한 모자이크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한다. 또한 사회구조도 독특한 자화상, 결혼관습, 지배층, 토지소유권, 성 관습, 민족의식, 주거지, 언어 등의 수많은 구성요소, 즉 동질단위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았다.⁴⁶⁾ 이런 가운데 “사람들은 인종적, 언어적, 계급적 장벽을 헐지 않고 기독교인이 되기를 원한다”⁴⁷⁾는 사실과 “인류라는 이 놀라운 모자이크 모든 조각에서 교회들이 증거되어야만 한다”⁴⁸⁾는 사실을 기초로 탄생한 것이 동질집단의 원리이다.

이 원리는 기독교 신앙이 교회를 건설하고 모든 기독교인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만들면서 장벽들과 도랑들을 넘어서 전달될 수 있으며 따라서 다른 사회들, 계급들, 카스트들, 언어들, 인간 사회의 구획들 안으로 건설되어 들어갈 수 있는 방식들을 탐구하는 것이다.⁴⁹⁾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원리

45) 위의 책, 51쪽.

46) 위의 책, 316쪽.

47) 위의 책, 337쪽.

48) 위의 책, 128쪽.

가 기독교 교육이나 훈련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전도에 있다는 것이다. 또한 동질단위는 융통성있는 개념으로 그것이 사용되는 문맥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이다.

이런 측면에서 맥가브란은 교회성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유용한 도구로 보았다. 피터 와그너는 동질집단의 원리에 의하여 제기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서로 어떠한 행동을 위하여 하느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령에 대하여, 아직 교회에 대하여 모든 것을 잘 모르고 있는 불신자들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깨달을 때 어떠한 반응을 나타내느냐”라고 말한다.⁵⁰⁾

그러므로 동질집단 원리는 이 원리는 공통적인 특성을 가진 집단의 복음 전도에 우선적인 목표를 두는데,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회의 한 부분이 기준이 되어 사람들이 민족적, 언어적, 계층적 장애들을 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해서 복음화가 이루어진다. 여기서는 민족적, 언어적, 계층적 장애가 없을 때 효과적인 복음 수용이 가능하므로 복음 전도자의 입장에서는 형태를 제거하려 하지 말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한 것이다.

b. 수용성의 원리

맥가브란은 예수님의 ‘씨뿌리는 비유’를 통해 복음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의 개인이나 사회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 즉, 수용성에 있어서의 차이는 인간의 본성과 사회의 현저한 측면들 중의 하나이지만, 이 차이는 선교의 모든 측면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다. 맥가브란은 수용성의 정도를 보편성과 특수성이라는 관점에서 보았는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⁵¹⁾

수용의 특수성이 높은 지역에는 추수노동력의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고, 각 특수성에 적합한 추수 노동력만이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수용의 보편성이 높은 지역은 최대의 추수가능성을 가진 지역이 된다. ...전도의 시기는 이러한 복음의 수용성이 가장 높을 때이며, 이와 함께 중요한 것은 추수할 일꾼들을 수용성이 높은 지역으로 보내는 것이다.

49) 위의 책, 339쪽.

50) C. Peter Wagner, “Your Church Can Grow”, 권달천 역, 『교회성장원리』, 185쪽.

51) Donald A. McGavran, *Understanding Church Growth*, 전재욱, 이요한, 김종일, 『교회성장이해』, 388-92쪽.

맥가브란은 수용성의 원리의 본질적인 과제는 수용성을 발견하고, 수용적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고, 그들의 이웃들을 영생으로 인도할 때까지 그러한 수용성에 맞게 선교방법, 제도 및 직원들을 조정하는 것을 보았다. 이 때 효과적인 전도가 요구되는데, 효과적인 전도방법은 잃은 자를 찾고, 찾은 자를 기독교인이 되게 하며, 그들에게 말씀을 먹이고, 그들을 새로운 회중들이나 기존의 회중들 속에 통합시키게 된다.⁵²⁾

c. 족속운동(People Movement)⁵³⁾

맥가브란은 집단정신을 그리스도를 믿겠다는 결심이 파도처럼 휩쓸리게 되어 기독교인이 되는 족속운동을 선교지에서의 교회성장의 핵심전략으로 보았다.⁵⁴⁾ 그리고 족속운동을 미국교회를 포함한 일반적인 교회에 적용하여 이해하였다. 그러므로 족속운동은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의 사회적인 기초 원리를 바탕으로 일반적 교회와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교회성장원리로 확장된 것이다. 그는 선교의 첫 열매들이 같은 종족이나 사회의 적대적 세력에 둘러싸인 폐쇄적인 집단으로 전략하지 않는 선교 방법을 족속운동, 즉 족속운동 양식의 기독교화, 그리스도를 향한 족속운동을 말하였다.⁵⁵⁾

맥가브란은 ‘족속운동’에서 족속을 부족 또는 카스트, 종족, 혈족, 또는 어떤 사회이든 그 사회의 서로 밀착된 유대를 지니는 동질의 무리로 보면서 다음과 같이 족속운동에 대해 정의한다.⁵⁶⁾

족속운동은 모두 동일 부족 출신인 다수의 개인들-5명이든, 500명이든-의 공동 결단으로부터 초래된다. 이러한 것은 그들로 하여금 사회적 이동 없이 기독교인들이 되게 하여 그들의 비기독교인 친척들과 옛날과 다름없는 접촉을 유지하게 하며, 그 부족의 다른 그룹들이 여러 해가 지나서 교훈에 적합하게 된 후 유사한 결단에 임하게 되고 그리하여 오로지 그 부족의 성원들로 이루어진 기독교 교회들을 형성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52) 위의 책, 395쪽.

53) 『교회성장이해』에서는 ‘인간운동’으로, 『하나님의 선교전략』에서는 ‘족속운동’으로 해석되어 있다. 본 고에서는 ‘모든 민족’이라는 측면을 강조하는 ‘족속운동’을 사용하기로 한다.

54) Donald A. McGavran, *The Bridges of God*, 이광순 역, 『하나님의 선교전략』(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3), 33쪽.

55) Donald A. McGavran, *Understanding Church Growth*, 전재욱, 이요한, 김종일, 『교회성장이해』, 485쪽.

56) 위의 책, 488쪽.

맥가브란은 인간운동을 통하여 진정으로 발생하는 것은 비교적 잘 교훈된 작은 그룹들이 기독교인들이 되는 것으로, 질적 증가와 함께 수적 증가도 함께 확실히 성취된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서는 개별 중심적인 성장양식이 아니라 ‘복수-개인적이고, 상호 의존적인 개종’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⁵⁷⁾ 그는 민족들로 제자를 삼으라는 권위어린 말씀에 주목할 것을 당부하며, 미래의 대성장은 족속운동에 의하여 이루어지리라고 확신하였다.⁵⁸⁾

d. 제자화와 완전화

맥가브란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과 질적인 성장을 분리할 때 그것은 곧 기독교적인 것이 되지 못한다고 말하였다.⁵⁹⁾ 또한 복수-개인적, 상호 의존적 개종을 통하여 주님께 돌아온 회심자에게 개종에 뒤이어 즉각적으로 세례 이전 및 세례 이후 과정들에서 상당히 구체화된 신학적 교육이 제공되어야 함을 말한다. 즉 원래의 결단은 성경을 통한 의식적 교육에 의하여 더욱 의미있게 된다고 보았다.⁶⁰⁾ 이를 위해 맥가브란은 제자화와 완전화를 말한다.

첫 번째, 제자화 단계⁶¹⁾는 지상명령에 입각해서 족속들을 제자로 삼는 단계로,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주와 구세주가 되심을 믿고, 그리스에게 연합되어 있다고 느끼고, 그들 자신이 주님의 교회의 교인이라고 믿으며, “우리 식구들은 기독교인이며, 우리들의 책은 성경이고, 우리들이 예배드리는 장소는 교회이다”라고 깨닫는 단계이다.⁶²⁾

두 번째, 완전화 단계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는’ 족속들을 완전케 이르게 하는 단계로, 제자화된 집단 안에 도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며, 공동체 전체에 철저한 기독교적 생활방식이 점차 이루어지며, 개인이 결심할 나이가 되면 각 세대를 구성하는 개인의 회심이 이루어지는 단계이다.⁶³⁾ 맥가브란은 제자화와 완전화 단계를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나 사회 속에 기독교 문명을 정

57) 위의 책, 495쪽.

58) 위의 책, 490쪽.

59) 위의 책, 86쪽.

60) 위의 책, 500쪽.

61) 맥가브란은 *Church Growth Bulletin*의 1979년 5월호에 실린 “How About that New verb To disciple?”라는 논문에서 동사 *disciple*의 의미를 D-1(사회의 기독교화), D-2(사회의 기독교화), D-3(교인의 제자화)로 구분하였다.

62) Donald A. McGavran, *The Bridges of God*, 이광순 역, 『하나님의 선교전략』, 34쪽.

63) 위의 책, 36쪽.

착시키는 기독교화를 위한 과정으로 보았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맥가브란의 교회성장학은 성서의 가르침에 기반을 두고 사회학적인 연구를 도입함으로 선교지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불신자들로 하여금 예수의 제자, 교회의 책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통전적 교회 성장을 시도하였다고 할 수 있다.

B. 피터 와그너의 교회성장원리

1. 피터 와그너의 교회성장원리에 대한 일반적 고찰

피터 와그너는 1971년부터 1981년 맥가브란이 은퇴할 때까지, 그의 동료 교수이면서 대리역으로서 지냈으며, 1984년 맥가브란 교회성장교수직의 첫 계승자로 임명되었다.⁶⁴⁾ 여기서 보듯이 피터 와그너는 맥가브란의 교회성장학의 원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맥가브란이 선교적 측면에서 교회성장학을 역설하였고, 당시 아프리카, 아시아,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등 제3세계에 연구가 주로 진행되고 있었지만, 와그너는 주로 북미 교회들의 교회성장과 운동, 특히 목회적 측면에서 교회 성장에 초점을 두었다. 와그너는 미국 교회에 관심을 두고 미국 교회라는 현장 속에서 “왜 어떤 교회는 성장하고 있는데 다른 교회는 그렇지 못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했다. 바로 이 해답을 찾는 일이 와그너에 있어서 교회 성장운동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다.⁶⁵⁾

그럼에도 와그너는 분석하는 방법에 있어서 맥가브란이 시도했던 사회 과학적 방법을 더욱 강화시켜 사용하였다. 그는 교회 성장에 관한 과학적인 측면을 강조했는데, 전도 활동의 성공 여부에 관계되는 모든 요인들을 분석하고 파악하는 데 그 방향을 두었다. 이런 측면에서 와그너는 ‘교회성장과학’이란 용어를 쓰는데, 다음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⁶⁶⁾

64) C. Peter Wagner, *Church Growth State of the art*, 이재범 역, 『교회성장학개론』, 18쪽.

65) 위의 책, 26쪽.

66) 위의 책, 47쪽.

교회성장과학이란 왜 어떤 교회는 성장하고 또 어떤 교회는 쇠퇴하는가 라는 문제의 이유를 설명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다. 또한 어떤 그리스도인은 친구를 교회로 인도해 오는데 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못한가라든지, 교회 내의 말초신경질병의 증세는 어떤 것인가라는 등등의 현상을 해석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다.

와그너는 하나의 과학으로서의 교회성장을 말하기까지 하는데, 교회성장 과학은 새로운 언어, 새로운 호칭, 새로운 양식을 제공하기에 하나님의 청지기로 서 능력을 증대시켜 준다고 보았다.

2. 피터 와그너의 교회성장원리

a. 건강한 교회의 살아있는 일곱 표적

와그너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성경적으로 교회의 건강상태를 분석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으리라고 생각했고, 이 방법을 ‘건강한 교회의 살아있는 일곱 표적’으로 제시하였다.⁶⁷⁾ 그러나 이 표적에 앞서 그리스도인의 모든 행동의 기본적인 요소이면서도 교회성장의 기본 전제가 있는데, 그것은 믿음이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앞을 내다보고 교회가 성장할 것을 바라볼 수 없다면 거기에는 성장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한다.⁶⁸⁾ 즉, 성장하는 교회의 필수적인 조건은 바로 그 교회가 성장을 원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 때 믿음은 교회 성장을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헌신으로 나타난다고 보았다.⁶⁹⁾

1) 목사

와그너는 미국 내에 성장하는 교회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그래서 교회성장 전문가들 모두가 동의하는 성장 요인은 지도자들의 개인적인 성품임을 말한다. 이 성품의 특색을 다섯 가지로 정리하였는데, ‘일편단심의 순종’, ‘확고부동한 목적’, ‘통찰력있는 연구 조사’, ‘냉정한 평가’, ‘신앙적 낙관주의’이다.⁷⁰⁾ 이

67) C. Peter Wagner, "Your Church Can Grow", 권달천 역, 『교회성장원리』, 33쪽.

68) 위의 책, 60쪽.

69) 위의 책, 65쪽.

70) 위의 책, 30-32쪽.

와 같이 유능한 목사는 말씀과 지도력을 통해 전체 교회로 하여금 성장을 위한 행동을 하는데 촉매역할을 감당한다.

2) 교인

목사는 평신도들이 능동적이며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조직체를 만들 줄 알아야 하며, 뜻 깊은 기독교 운동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이 때 평신도는 능동적으로 발견된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여 평신도 운동에 참여해야 한다.⁷¹⁾ 와그너는 평신도 동원을 개발한다면 성장의 막중한 잠재력을 낳게 되는데, 교회 내에서 효과적인 전도운동의 가장 큰 잠재력은 전도의 은사를 소유한 10%의 성숙된 그리스도인에게 있고, 믿은 지 3년이 넘지 않은 새신자들을 잘 조화시켜 교회성장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⁷²⁾ 이와 함께 나머지 90%의 교인들이 증인으로서의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해야 함을 말한다.

3) 교회의 규모⁷³⁾

세 번째 표적은 교회의 규모가 넉넉한 데 있는데, 와그너는 어떤 수적 규모를 다루기보다는 “각 교회의 최적의 규모란 근본적으로 그 교회의 목회 철학에 달려 있는 것이다”는 원리를 말한다. 이와 함께 규모가 넉넉한 교회는 “그 교회가 개척 교회를 세울 수 있을 정도로 그 기반이 충분히 다져져 있어야 한다”는 최적 성장의 하한선을 말한다. 특히 규모가 넉넉한 교회는 잃은 양떼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일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교회 교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역량을 가져야 함을 말한다.

4) 구조와 기능⁷⁴⁾

네 번째 표적은 “대예배+모임+세포조직=교회”라는 공식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첫째, 대예배는 많은 사람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할 때 특별한 예배의 체험을 맛볼 수 있는 예배를 의미하는데, 성경은 축제로서의

71) 위의 책, 99쪽.

72) 위의 책, 123쪽.

73) 위의 책, 139-45쪽.

74) 위의 책, 147-67쪽.

예배를 말하고 있다. 둘째, 모임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이외의 다른 모든 사람들을 알도록 되어 있는 곳으로, 어느 정도 자치권이 있는 친교조직체로서의 모임을 뜻한다. 셋째, 세포조직은 8명~12명의 신자들이 서로 서로 섬기기 위하여 함께 모이는 작은 그룹으로, 밀접한 관심을 나누는 친척 관계의 조직체이다.

5) 하나의 교회에 대해

다섯 번째 표적은 동질집단의 원리에 따라 그 교회의 교인들이 기본적으로 동일한 부류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공통적인 이해관계와 비슷한 문화적 배경으로 인해 서로 함께 모이면 편안함과 행복감을 누리기에 교회 성장이 잘 이루어진다.⁷⁵⁾ 와그너는 인종차별이나 문화차별이 아니라 전도에 초점을 맞춘 원리이고, 교인조직체와 친교조직체 안에서 효력을 나타내야 함을 강조한다.⁷⁶⁾

6) 방법

여섯 번째 표적은 그 교회가 효과적인 전도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인데, 단지 결심자를 얻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만드는데 초점을 둔다.⁷⁷⁾ 여기서 효과적인 전도방법은 보편적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도 대상자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다양한 방법이 존재한다. 이 때 맥가브란의 모자이크 이론과 동질집단원리가 사용된다.

7) 우선순위에 대하여

일곱 번째 표적은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 가라는 문제가 바로 되어 있다는 것인데,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신앙적인 기능을 잘 수행하는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이다.⁷⁸⁾ 이 때, 와그너는 “첫 번째 우선순위는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것이다. 두 번째 우선순위는 그리스도의 몸예 전적으로 의탁하는 것이다. 세 번째 우선순위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행동에 전적으로 의탁하는 것이다”고 성경적 우선순위들을 정하였다.⁷⁹⁾ 특히, 와그너는 세 번째 우선

75) 위의 책, 171쪽.

76) 위의 책, 191쪽.

77) 위의 책, 213쪽.

78) 위의 책, 231쪽.

순위에 전도 운동과 사회 운동이라는 두 초점이 있는데, 전도운동이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였다.

결론적으로 와그너는 교회가 성장을 계속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일곱 가지 살아 있는 표적들을 잘 검토하고 진단하여 구원 받는 사람이 날마다 늘어나는 성장하는 교회가 되도록 해야 함을 말한다. 이를 위해 교회의 수량적 성장을 우선순위로 두고 제자 양육과 함께 제한된 시간, 돈, 재원에 따른 전략 연구가 전제되어야 함을 말한다.⁸⁰⁾

b. 성령의 역사와 은사

와그너는 목회적 측면에서 교회성장을 말할 때, 교회성장과학과는 상반된 입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와 은사를 말하였다. 결국 교회성장과학에 의해서 발견된 교회성장원리의 원동력이 성령님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1960년 중반기부터 성령의 은사에 관한 사항을 관심 있게 연구하였는데, 달리기 위해서는 연료가 필요하듯이 성령의 능력이 필요함을 강조한다.⁸¹⁾ 특히, 1980년경 와그너 스스로가 성령을 뜨겁게 체험함으로써 더욱 힘있게 오순절 성령운동을 전개, 대중화시켰다. 이로써 교회컨설팅은 관찰 방법론에서 성령운동에 더욱 무게를 실었으며 그 결과 지난 10년~20년 동안 교회컨설팅은 교회성장과 성령운동에 더 많은 관심을 두게 되었다.⁸²⁾

그는 1980년대 10년 동안 초자연적 표적과 기사들을 과거의 교회성장과 연결시키는 방법과 미래의 교회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를 밝히는 것을 연구하였다. 특히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처음으로 내어 보내실 때 사용하셨던 ‘능력전도’에 관심을 가졌고, 이것이 가장 왕성한 교회성장의 결과를 가져왔음을 말한다.

결론적으로 피터 와그너는 목회적 측면에서 교회성장을 연구하였고, 사회과학적인 방법을 강조하면서도 자연스럽게 교회성장의 주체로서의 성령의 능력, 그리고 은사를 강조하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그는 본고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전통적 교회성장원리를 성령론을 중심으로 발전시켜 “신사도 교회”라는 새로운 교회성장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79) 위의 책, 251쪽.

80) C. Peter Wagner, *ChurchQuake*, 홍용표 역, 『21세기 교회성장의 지각변동』, 417쪽.

81) 위의 책, 34쪽.

82) 케리 맥킨토시, “미국의 교회성장, 어디로 가는가?” 『월간 교회성장』 (2006.1), 22쪽.

C. 현대에 나타난 대표적 교회성장이론

1. 자연적 교회성장의 교회성장원리

1955년 출판된 맥가브란의 저서인 『하나님의 가교』를 통해 태동한 교회성장학은 처음부터 인간적인 기교와 기법들로 가득 차 있다는 혹독한 비난을 받았다. 그럼에도 1980년대 교회성장운동은 복음의 현장 속으로 폭발적으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1980년 후반 맥가브란이 우려를 표할 정도로 미국교회에서 회심 성장이 점점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다.⁸³⁾ 더 나아가서 ‘전도’를 많은 사역 중의 하나로서 행했던 서구 교회들이 예배와 제사화, 교제와 봉사 등을 전적으로 전도에 적합하게 재구성하지 못하여 세상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⁸⁴⁾

이런 가운데 1990년 초 크리스티안 슈바르츠가 이끄는 독일의 자연적 교회 성장 국제연구기관이 “어떻게 하면 문화나 신학적 주장에 상관없이 모든 교회가 적용할 수 있는 교회성장원리를 발견할 수 있을까?”⁸⁵⁾라는 질문에 대해 과학적으로 증명된 해답을 찾고자 세계적인 연구 프로젝트에 착수하였다. 이 연구는 맥가브란이 주장한 “교회성장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곳에서 성장을 허락하시는지를 조사하고, 어떤 요소가 하나님께서 성장의 은혜를 주시도록 한 것인지를 질문하는 것이다”⁸⁶⁾는 교회성장의 기초 개념을 구체적으로 현실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994년부터 1996년까지 교회 성장 요인을 찾아내기 위한 방대한 조사와 심도 깊은 연구를 통해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에서 운용되는 있는 8가지 질적 특성들⁸⁷⁾에 대한 기본틀이 드러났는데, 이 틀은 개교회가 부족하여 필요한 원리나 성장하는 교회로부터 배우는 모방적 차원의 원리가 아니라 모든 교회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각 여덟 개의 질적 특성들을 평가하는 질의 지표상에서 각각의 항목에서 65 또는 그 이상의 점수에

83) 캐리 맥킨토시, “교회성장학자 맥가브란의 사역을 중심으로”, 『월간 교회성장』, 30쪽.

84) 에드 스테처, “미 교회성장의 현주소를 진단한다”, 『월간 교회성장』(2006.1): 41쪽.

85) *Christians A. Schwarz, Natural Church Development*, 정진우 역, 『자연적 교회 성장』(서울: 도서출판 NCD, 1999), 18쪽.

86) 에드 스테처, “미 교회성장의 현주소를 진단한다”, 『월간 교회성장』(2006.1): 40쪽.

87) 8가지 질적 특성들은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 은사 중심적 사역, 열정적 영성, 기능적 조직, 영감있는 예배, 전인적 소그룹, 필요 중심적 전도, 사랑의 관계’이다.

도달한 교회들은 99.4 퍼센트 성장하는 교회라는 괄목할 만한 특징을 발견하게 되었다.⁸⁸⁾ 이 연구를 통해 자연적 교회성장원리들이 나오게 되었다.

a. 여덟 가지 질적 특징

자연적 교회성장에서는 ‘여덟 가지 질적 특징’이라고 부르는 영역들에서 이루어지는 질적 성장이 양적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추정한다. 이 추정 역시 앞에서 언급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성장하는 교회들은 여덟 개 중 반 이상의 항목에 속해 있었고, 쇠퇴하는 교회들은 반 이하의 항목에만 속해 있을 뿐이라는 연구 결과를 얻었다.⁸⁹⁾

1)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

효과적인 지도력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부터 시작되고 예수님을 닮은 인격을 열매 맺게 되며, 지도자로 살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한다.⁹⁰⁾ 이런 점에서 영적으로 점점 성숙해지게 되면 효과적으로 “목표 지향적인” 교회사역을 할 뿐만 아니라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을 통해 영적 자생조직을 더욱 많이 생산하게 된다. 그리고 연구에 따르면 성장하는 교회의 목사들이 일반적으로 쇠퇴해가는 교회 목사들에 비해 더 관계 중심적이고, 사람 중심적이고, 팀 사역 중심적인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팀 사역 중심적인 목사들은 자연스럽게 두 번째 질적 특성인 “은사중심적인 사역”을 하게 된다.⁹¹⁾

2) 은사 중심적 사역

에베소서 4:7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한다. 즉, 성령님께서서는 하나님 나라의 구현과 확장을 위해 주권적으로 그리스도인에게 분량대로 영적인 은사를 주신다. 특히 에베소서 4:11~12절⁹²⁾은 교회지도자들에게 신자들이 자신의 은사에 맞는 적절한 사역 속에서 자

88) Leslie H. Brickman, *Natural Church Development and Cell Church*, 『셀교회와 자연적 교회 성장』, 34-35쪽.

89) 위의 책, 34쪽.

90) 위의 책, 36쪽.

91) Christians A. Schwarz, *Natural Church Development*, 정진우 역, 『자연적 교회 성장』, 22쪽.

92)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

신의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말한다.⁹³⁾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은사 사용 여부만큼 그리스도인의 삶에 만족을 가져다주는 요소는 없다는 사실이 나타났다.⁹⁴⁾

3) 열정적 영성

“열정적 영성”은 교회성장신학의 핵심인 믿음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참된 관계, 친밀한 영적 교제임을 말해준다.⁹⁵⁾ 연구에 따르면 교회의 질적, 양적 성장은 “이 교회 성도들은 기쁨과 열정으로 헌신과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특히 “기도 생활에 있어서 영감 있는 경험이 있는가?”에 깊은 관련이 있다.⁹⁶⁾

4) 기능적 조직

교회는 그리스도의 살아 있는 몸이다. 모든 건강한 다른 유기체들과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 몸이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함께 일할 수 있는 수많은 조직체계가 필요하다. 연구에 따르면 높은 질적 지수를 얻은 교회들은 공통적으로 어떤 기본적인 요소들, 특히 사역의 계속적 증진을 촉진하는 조직개발의 특징을 갖고 있다.⁹⁷⁾

5) 영감있는 예배

영감있는 예배는 살아 계신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하고 기쁨으로 경배하는 시간 그리고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의 경배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연구에 따르면 영감 있는 예배 경험과 교회의 질적, 양적 성장은 떼어 수 없는 밀접한 연관이 있다.⁹⁸⁾

6) 전인적 소그룹

면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엡 4:11-12)

93) Leslie H. Brickmam, *Natural Church Development and Cell Church*, 『셀교회와 자연적 교회 성장』, 36쪽.

94) Christians A. Schwarz, *Natural Church Development*, 정진우 역, 『자연적 교회 성장』, 24쪽.

95) 위의 책, 38쪽.

96) 위의 책, 26쪽.

97) 위의 책, 28쪽.

98) 위의 책, 31쪽.

전인적 소그룹은 불신자에게 다가가려고 애쓰며 개인적인 필요를 채워 주고, 하나님께서 그들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들을 개발하며 교회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제자사역 공동체들이다.⁹⁹⁾ 연구에 따르면 교회가 커질수록 소그룹 원리는 계속되는 성장을 위한 결정적 요인이다.¹⁰⁰⁾

7) 필요 중심적 전도

필요 중심적 전도는 의도적으로 불신자들과 관계를 맺고, 불신자들이 당면한 문제와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에 집중한다. 연구에 따르면 모든 그리스도인 중 10퍼센트 이하의 사람에게만 전도의 은사가 있다고 말한 피터 와그너 박사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¹⁰¹⁾

8) 사랑의 관계

사랑의 관계는 건강하고 성장하는 교회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이다. 연구에 따르면 교회의 사랑 표현 능력과 장기간의 성장 잠재력 간에는 매우 중요한 연관이 있다.¹⁰²⁾

b. 여섯 가지 생명체적 원리

생명체적 원리는 교회 내에서 창조 세계에서 일어나는 생명활동이 일어나게 하는 원리로서, 교회가 ‘교회 본연의 모습이 되도록’ 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앞의 여덟 가지 질적 특성은 ‘무엇인가?’라는 질문과 관련되어 있는 반면에, 생명체적 원리는 ‘어떻게?’라는 질문과 관련되어 있다.¹⁰³⁾ 여섯 가지 생명체적 원리는 상호의존, 번식, 에너지 변환, 다목적, 공생, 기능이다.

여섯 가지 생명체적 원리를 여덟 가지 질적 특성의 각각에다 적용하면 할수록, 교회의 성장 잠재력을 더 커지게 된다. 특히 슈바르츠는 여덟 가지 질적 특징 중 “전인적 소그룹”을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보았는데, 결국 번식을 통한

99) Leslie H. Brickmam, *Natural Church Development and Cell Church*, 『셀교회와 자연적 교회 성장』, 38쪽.

100) Christians A. Schwarz, *Natural Church Development*, 정진우 역, 『자연적 교회 성장』, 33쪽.

101) 위의 책, 34쪽.

102) 위의 책, 36쪽.

103) 위의 책, 430쪽.

재생산을 위해 나머지 다섯 가지의 생명체적 원리가 사용된다고 할 수 있다.

c. 최소치 전략

최소치 전략은 “우리는 그것을 언제 해야 하는가?”는 올바른 시기를 가르쳐 준다. 이 전략은 어느 한 시기에 동일한 강도로 여덟 가지 질적 특성을 모두 주력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 성장에 장애가 되는 최소치 열소를 개선하는데 시간상 우선적으로 해야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생명체적 해답이다.¹⁰⁴⁾ 교회의 최소치 요소를 개선하기 위해 교회의 기존 역량을 활용해야 한다. 최소치 요소가 개선될 때 궁극적으로 교회성장에 있어서 자연적 교회성장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지금까지 자연적 교회성장에 대해 살펴보았다. 자연적 교회 성장은 창조 세계와 성경 속에 부여하신 보편적 성장 원리를 발견함으로 하나님에 의한 교회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서구에서 교회성장이론이 선교적인 원리 보다 시장 원리로 해석되고 있을 때, 특히 신학적, 선교적, 복음적 관심보다는 교회를 단순히 성장시키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을 때, 자연적 교회성장은 교회로 하여금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상을 찾도록 하였다. 그러나 교회 내적 요인에 대한 지나친 관심은 ‘선교 지향적 교회’라는 선교적 강령을 분명하게 실천하는 교회로서의 본래적 모습으로의 회복에 대한 관심을 놓치고 있다고 생각된다.

2. 셀교회의 교회성장원리

셀교회는 ‘셀그룹과 예수 그리스도의 토대 위에 세워진¹⁰⁵⁾’ 가장 차원 높은 유기체적인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의 기초 공동체를 말한다. 셀교회는 초대 교회에 나타난 교회의 본질을 그대로 따르는 교회이고, 끊임없이 흐르는 성령의 은사 없이는 존재할 수 없고, 오직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장하게 된다.

104) Christians A. Schwarz, *Natural Church Development*, 정진우 역, 『자연적 교회 성장』, 49쪽.

105) David Pinell, *Life In His Body*, 박영철 역, 『셀교회 평신도 지침서』, 26쪽.

성경 속에서 우리는 셀교회의 원형을 예수님의 사역과 사도행전의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떤는”(행2:46) 초대 교회에서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예수님은 열 두 제자를 세우시고 그들과 함께 하는 생활을 통하여 사랑과 수요의 생활방식을 몸소 보여주셨다. 예수님은 열두 제자라는 하나의 공동체, 즉 셀그룹에서 함께 생활하셨다. 그리고 사역을 효율적으로 감당하고 성장시키셨다. 그러므로 셀교회는 지도자가 모델이 되어 실천적인 양육이 이루어짐으로 건강한 교회로의 회복과 함께 교회성장을 추구하는 성경적인 원리임을 알 수 있다.

랄프 네이버는 “셀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움직임이며, 그것은 항상 외부로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않는 이들을 안으로 끌어들이는데 전력하며, 항상 그리스도의 주재권 아래 기능하는 모든 개개의 지체들을 훈련시키는 일에 관심을 갖는다”¹⁰⁶⁾고 말한다. 그는 셀교회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구조를 셀그룹 요약하는 셀그룹 교회를 요약하는 ‘C’로 시작하는 세 단어로 설명하는데, ‘셀(Cell)’, ‘회중(Congregation)’, ‘축제 예배(Celebration)’이다.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셀’이다.¹⁰⁷⁾

a. 셀

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토대 위에서 회원들의 가정에서 만나는 셀들을 중심으로 세워진다. 셀은 교회생활의 기본단위인 동시에 하나의 교회이며, 성도들과 불신자들은 셀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교제와 서로 간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교회공동체에 참여하게 된다. 특히 랄프 네이버는 셀을 목자, 인턴 목자, 그리고 멤버 3명~15명 미만으로 구성되는 ‘목자그룹’으로 설명한다.¹⁰⁸⁾ 목자 그룹은 사람들이 성숙되고 섬기도록 훈련받는 셀로서, 새신자들이나 신앙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도 이곳으로 초대되고 깊은 삶의 나눔을 통해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양육 받게 된다.

b. 회중

106) Ralph W. Neighbour, *Where Do We Go from here*, 정진우 역, 『셀교회 지침서』, 306쪽.

107) 위의 책, 297쪽.

108) 위의 책, 299쪽.

데이비드 핀넬은 회중을 “회중이란 셀의 사역과 성장을 관리하기 위해 지역 또는 동질의 그룹들을 하나의 조직으로 묶은 것”으로 정의한다.¹⁰⁹⁾ 셀그룹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동시에 참여한 멤버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의 본질적인 필요를 충족시킬 때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된다. 보통 4~6개월 동안 7, 8명에서 12명, 15명으로 성장하고, 이 때 셀은 분화하게 된다. 특히 셀그룹들은 지역적으로 175명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회중을 구성하게 된다.¹¹⁰⁾ 이를 통해 셀그룹의 리더들은 그들의 리더들인 교구를 섬기는 자들과 교구 목회자들의 감독과 통제를 받아 질서를 유지하게 된다.

c. 축제 예배

셀교회의 축제예배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인들을 격려하며,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90여분 동안 드리는 역동적인 예배이다.¹¹¹⁾ 예배, 찬양, 중보기도, 격려, 가르침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모든 교인들이 축제 예배를 통해 함께 살아가는 그들의 삶에 대해 증거한다. 일반적으로 축제예배는 전통 교회의 대예배와 비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구도자 예배와는 달리 믿는 자들의 모임이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만남은 주로 각각의 셀에서 이루어지도록 한다. 그리고 전통교회와는 달리 시간이나 날짜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든지 가능하도록 한다.

그러나 데이비드 핀넬은 셀교회 구조의 토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함으로 셀교회가 전통적 교회관과 동일하게 ‘사도적 교회’임을 말한다. 또한 ‘훈련사역’¹¹²⁾을 셀교회 구조의 지붕으로 명시함으로 맥가브란의 ‘제자화’와 ‘완전화’를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다. 즉, 훈련사역이 있어야만 책임있는 리더가 양육되고 자연스럽게 셀이 성장, 분화하는 건강한 교회가 됨을 말한다.

풍성한 교회 김성곤 목사는 책임있는 셀리더의 중요성에 대해 “셀의 번

109) David Pinell, *Life In His Body*, 박영철 역, 『셀교회 평신도 지침서』, 30쪽.

110) Ralph W. Neighbour, *Where Do We Go from here*, 정진우 역, 『셀교회 지침서』, 307쪽.

111) David Pinell, *Life In His Body*, 박영철 역, 『셀교회 평신도 지침서』, 31쪽.

112) 훈련사역은 셀그룹 커리큘럼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터치국제본부에서는 야구장 다이아몬드 그림으로 표현하였다. 이 커리큘럼은 수양회(흠: 새가족 수양회, 1루: 내적치유수양회, 2루: 전도수양회, 3루: 셀 리더쉽 수양회)와 각각의 수양회로 가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양육교재(새로운 삶의 시리즈 0-7권)로 이루어진다.

식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감당하는 영혼의 아버지로서의 셀리더들을 얼마나 배출해 내는가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¹¹³⁾ 콜롬비아 보고타 ICM교회의 G-12 모델은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들을 양육하셨던 방식을 그대로 따라서 모든 사람을 잠재적인 셀리더로 보고 개개인을 양육함으로 성장과 함께 확실한 지도자가 되도록 기여하며, 자신의 제자들도 그러하도록 계속해서 기여하도록 하는 셀교회의 양육시스템을 구축하였다.¹¹⁴⁾

셀교회는 전통교회에 대한 극단적인 비판과 전환 시 나타나는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전통교회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만¹¹⁵⁾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회복의 측면과 삶의 터전 속에서 전도적 측면에서는 교회성장을 위한 좋은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교회성장에 대한 일반적 이해와 대표적인 교회성장이론으로 맥가브란과 피터 와그너의 전통적 교회성장원리들과 현대에 나타난 자연적 교회성장론과 셀교회의 교회성장원리에 대해 살펴보았다. 전통적 교회성장원리들은 교회성장학의 기틀을 마련했고, 자연적 교회성장론과 셀교회는 전통적 교회성장원리의 연속성 속에서 목회현장 가운데 적용되는 구체적인 원리들을 세웠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성장이 단순히 실용주의적 측면에서 교회 프로그램이나 목회 기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위임령에 충성하는 과정 가운데 이루어진 우리의 신학적이고 목회적인 응답임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의 교회성장이론들이 여전히 신학적인 단절과 부재라는 큰 한계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또한 선교적 관점에서 시작한 교회성장이 단순히 건강한 교회를 위한 이론이나 교회 자체의 성장으로 점점 그 범주가 줄어들고 있음도 발견하게 된다. 그러므로 칼빈의 신학과 목회에 나타난 교회성장연구를 통해 지금까지 가진 교회성장이론의 한계를 극복하는 동시에 교회성장의 지평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통전적 교회성장으로 재정립하고자 한다.

113) 김철웅, “일산 풍성한 교회의 셀목회 사례발표,” 『2005년 셀교회 네트워크 컨퍼런스 자료집』, 44쪽.

114) Cesar Castellanos, *G-12 Leadership*, 서효정, 홍주연 역, 『G-12 리더십』(서울: 도서출판 NCD, 2002), 134쪽.

115) 2006년 9월9일 목회자신문에 “예장총회 남녀선교회가 셀의 교회집목에 대해 총회차원에서 주의를 환기시키고 적절한 조치를 해 줄 것을 요구한다”는 기사가 실렸다.

IV. 칼빈의 신학과 목회¹¹⁶⁾

지금까지 전통적 교회성장이론과 현대에 나타난 교회성장이론을 살펴 보았다. 두 이론 모두 각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시대에 맞는 실천적인 응답이었고, 성령님의 역사의 결과이다. 그럼에도 교회성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높아졌고, 특히 신학의 부재라는 치명적인 약점은 지금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교회성장이 가지는 이 약점을 해결하는 방법을 와그너는 제시하는데, 그는 “종교 개혁자들이 제시한 권위, 이신칭의, 만일제사장설 같은 심오한 교리적 통찰에 필적할 만한 것은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¹¹⁷⁾고 말하였다. 결국 교회성장과 종교개혁, 특히 장로교의 문을 연 칼빈의 신학과 목회와의 관계를 살펴봄으로 교회성장학을 확고히 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칼빈의 신학과 목회에 나타난 교회성장을 연구하기 앞서 먼저 칼빈의 신학과 목회를 살펴보고자 한다.

A. 칼빈의 신학

방대한 칼빈의 신학 중에 교회성장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신학은 성령론이다. 성령은 죄인인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과 교제를 이루시는 분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는 교회로 이 땅에 구현하시는 분이다. 특히 칼빈의 성령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하는 방법을 설명하는데, 성령의 내적 증거로 믿음, 회개, 기독교적 삶을 다루고, 외적 증거로 교회론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본 장에서는 칼빈의 신학의 기초가 되는 교회론을 먼저 다룬 후, 삶의 신학¹¹⁸⁾와 선교신학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116) 칼빈의 신학은 제네바에서 이루어진 종교개혁을 통해 열매를 맺었다. 그러나 본 고에서는 칼빈의 모든 활동이 제네바 교회를 배경으로 이루어 졌기에 ‘목회’라고 명명하기로 한다.

117) C. Peter Wagner, *Changing Church*, 김영우 역, 『신사도적 교회로의 변화』(서울: 웨키나 출판사, 2006), 9쪽.

118) 이용원 교수는 책의 원제 ‘John Calvin’s Doctrine of Christian Life’를 쉽게 ‘삶의 신학’으로 번역하였고, 내용에서 ‘Christian Life’는 ‘기독교적 삶’으로 번역하였다. 본 고에서는 ‘교회 성장’과의 관계를 조명함에 있어서 의미전달이 분명한 이용원 교수의 번역을 따른다.

1. 교회론

칼빈은 1559년판 기독교강요 제4권에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게 하시려고 사용하시는 ‘성령의 외적 사역’에 대해 다루는데, 대부분 교회 문제를 집중해서 다룬다.¹¹⁹⁾ 그는 로마 교회와의 대립적 입장에서 교회의 영적인 측면을 강조하기도 하고, 신령주의자들, 특히 제세례파와의 대립적 입장에서 교회의 제도적인 측면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성경 원문에 충실한 교회의 개념인 ‘오직 하나의 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를 그 머리로 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으로 구별되는 오직 하나만의 교회라는 교회의 통일성을 변함없이 유지하였다. 이 통일성이 우리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교회’를 기준 삼아 ‘보이는 교회’를 판단할 수 있게 해준다.

칼빈은 선택, 특히 선택받은 성도들의 교제와 관련하여 ‘보이지 않는 교회’, 성화의 수단을 위임받은 외적인 질서와 관련하여 “보이는 교회”를 말한다. 특히 그는 부처와 동일한 입장을 취하는데, 부처는 두 교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¹²⁰⁾

성경이 교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면을 언급하고 있다고 말한다: 때때로 교회라는 단어는 선택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지체가 된 자들만이 속할 수 있는 참된 교회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현재 지상에 머물고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태초 이래로 모든 선택받은 자들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교회라는 말은 흔히 세계도처에 흩어져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에 똑같은 고백을 하고, 믿음의 증거로써 똑같은 세례를 받으며, 주님의 만찬에 참여함으로써 교리와 사랑의 통일성을 주장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전하고자 노력하는, 수많은 사람들 전체를 의미한다. ... 교회는 우리들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듯이, 우리는 또한 가시적 교회를 경외하고 그 교회와 계속 교통하도록 명령받았다.

특히, 칼빈은 1543년 이후에는 우리가 지상 생활에서 직접 관련되어 있는 교회, 즉 한 지역에서 모여 사는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되는 ‘보이는 교회’에 대

119) 필립 홀트롭, 박화석, 이길상 역, 『기독교강요 연구핸드북』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5), 324쪽.

120) 프랑수아 방델, 김재성 역, 『칼빈 그의 신학사상의 근원과 발전』, 360쪽.

해 가르쳤는데,¹²¹⁾ 기독교강요 제4권 1장 서두에서 ‘교회의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¹²²⁾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고 키우며 목적지까지 전진시키려면 무지하고 태만한(또 경박한 우리에게)는 외적인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약점에 대비해서 필요한 보조 수단도 첨가하셨다. 그리고 복음 전파가 활발하게 전개되도록 이 보물을 교회에 맡기셨다. 목사와 교사들을 임명하셔서(엡 4:11) 그들의 입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가르치게 하셨으며 그들에게 권위를 주셨고 끝으로 신앙의 거룩한 일치와 올바른 질서를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것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셨다. 우선 성례를 제정하셔서 성례에 참가한 우리는 그것이 신앙을 자라게 하며 강화하는 데 매우 유익한 보조 수단임을 체험한다.

칼빈은 “모든 경건자의 어머니인 보이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서슴없이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가시적 교회를 강조하였다. 특히, 복음의 전파와 가르치는 사역의 제도가 신앙을 일깨우고, 교회공동체의 구성원들의 집단적인 성화를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하였다.¹²³⁾

a. 신자들의 어머니인 교회

칼빈은 교회의 본질을 “교회는 우리의 어머니다”라는 몇 마디로 요약한다.¹²⁴⁾ 교회가 어머니로서 지닌 교회의 본질적 성격은 칼빈의 교회론의 기초라 할 수 있는 기독교강요 제4권 제1장의 제목¹²⁵⁾과 제4권 전체에 강하게 나타난다. 하나님은 무지하고 게으르고 육적인 사람들인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사귄 안으로 부르심을 받고 그 안에서 자양을 공급받는 방법들을 제공하신다.¹²⁶⁾ 칼빈은 전형적으로 모성과 관련된 용어를 사용하여 교회의 “품”과 “유아들과 어린이들”인 우리가 교회의 “모성적 보호”하에 받는 “자양”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¹²⁷⁾

121) 필립 홀트롭, 박화석, 이길상 역, 『기독교강요 연구핸드북』, 325쪽.

122) J. Calvin, *Inst(1559)*, 김종흡 외 3인 역, 『기독교강요』 IV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6), 8쪽.

123) 프랑수아 방델, 김재성 역, 『칼빈 그의 신학사상의 근원과 발전』, 354쪽.

124) Wilhelm Niesel, *Die Theologie Calvins*, 이종성 역, 『칼빈의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3), 185쪽.

125) 기독교강요 제4권 1장의 제목은 “모든 경건한 자의 어머니인 진정한 교회 : 우리는 이 교회와 연합되어 있어야 한다”이다.

126) 필립 홀트롭, 박화석, 이길상 역, 『기독교강요 연구핸드북』, 326쪽.

127) J. Calvin, *Inst(1559)*, 김종흡 외 3인 역, 『기독교강요』 IV, 8쪽.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의 품속으로 자녀들을 모으시기를 기뻐하셨는데, 이는 그들이 유아와 어린아이일 동안 교회의 도움과 봉사로 양육받을 뿐 아니라 어머니와 같은 교회의 보호와 지도를 받아 성인이 되고 드디어는 믿음의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는 사람에게에는 교회가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시는 영역이고 그리스도와 우리가 만나는 영역이 된다.¹²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하나의 교회”, “교회의 하나됨”,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을 “신자들의 어머니인 교회”를 통해 이루신다.

b.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교회는 신자들의 어머니로서 자녀인 성도들을 돌보고 양육함으로써 장성하여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을 이루도록 한다. 이 때 우리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사권을 갖게 된다. 빌헬름 니이젤은 “신도들의 어머니인 교회”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의 관계성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¹²⁹⁾

그러므로 교회는 엄격한 기관이 아니라 살아 있는 유기체, 서로 봉사하며 돕는 사귄체이다. 그리스도의 몸이 온 성도의 공동체라는 사상은 교회가 신도의 어머니라는 견해와 필수적으로 결부된다.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주라는 사실이 특별히 명백해 진다. 한 개인이나 모든 개인이 합해진 전체도 교회를 마음대로 취급할 수 없다. 다만 그리스도만이 이것을 취급한다. 그에 대해서 우리는 모두 무익한 중에 불과하다.

여기서 우리는 무익한 중에 불과하기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원하는 봉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사를 내려주셔야 한다. 이 때 그리스도는 교회의 유일한 지배를 확보하기 위해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맡기지 않으신다. 각자는 전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필요한 특수 은사를 받게 된다.¹³⁰⁾ 특히, 칼빈은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이루고 있는 형제들의 육신상의 궁핍함을 나누어 져야 함을 강조한다.¹³¹⁾

128) 필립 홀트롭, 박화석, 이길상 역, 『기독교강요 연구핸드북』, 326쪽.

129) Wilhelm Niesel, *Die Theologie Calvins*, 이종성 역, 『칼빈의 신학』, 187쪽.

130) 위의 책, 187쪽.

131) J. Calvin, *Inst(1559)*, 김종흡 외 3인 역, 『기독교강요』 IV, 11-12쪽.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무엇이든 서로 나누다는 원칙 하에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소집되었다고 하는 것이 이 귀절¹³²⁾의 뜻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자의 아버지시며 그리스도께서는 그들 모든 신자들의 머리시라는 것을 참으로 확신한다면 그들은 형제애로 연합되지 않을 수 없고 또 그들이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지 않을 수도 없다.

여기서 교회의 지체들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사에 근거해서 그리스도께서 기대하시는 봉사와 나눔에 있어서 서로 서로를 필요로 하게 된다. 이를 통해 교회에 대한 개인적인 주권행사도 제거될 수 있다. 그럼에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상, 하의 질서가 존속하고 있는데, 교회를 감독할 책임과 권위를 지닌 자들은 형제로서의 상호관계와 서로를 위하는 관계가 잘 보존하고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개인으로서나 공동체로서나 몸과 영혼을 바쳐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그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그에게 종속돼 있다는 사실이 인식되어야 하며 그 인식이 확증되어야 한다.¹³³⁾

c. 선택된 백성인 교회

선택된 백성은 보이지 않는 교회의 핵심으로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 초판(1336)과 요리문답서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임을 특히 강조하였다.¹³⁴⁾ 여기서 기억할 것은 ‘선택’은 예정론의 핵심이며, 구원받은 백성의 감사의 고백이다. 칼빈은 선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¹³⁵⁾

마귀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소멸시키기 위하여 온갖 수단을 다하고 하나님의 원수들도 그에 못지않은 잔인한 분노로 격분하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를 소멸시킬 수는 없으며 그리스도의 피를 무익한 것으로 만들지도 못할 것이고 오히려 어느 정도 유익을 주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데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밀한 선택과 그의 내적 부르심을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버림받은 자와 선택받은 자를 구별하라는 명령을 받지 않았다. 이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다. 우리가 여기서 할 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와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들어간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 자신의 소유가 되었으며, 우리도 그 일원이 될 때에는 그와 같은 위대한 은

132) 사도신경의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는 구절을 말한다.

133) Wilhelm Niesel, *Die Theologie Calvins*, 이종성 역, 『칼빈의 신학』, 188쪽.

134) 필립 홀트럽, 박화석, 이길상 역, 『기독교강요 연구헨드북』, 329쪽.

135) J. Calvin, *Inst(1559)*, 김종흡 외 3인 역, 『기독교강요』 IV, 10-13쪽.

혜를 나눠받게 된다는 것을 진정으로 확신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밀한 선택이 교회의 기초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근사하게 치장하고” 이웃에게 인정을 받는 곳이 아니라, 우리를 비우고 우리 죄와 죄책을 인정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을 붙드는 곳이다. 니이젤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다는 것을 깨닫는 자들은 선택이 신적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교회를 두려워해서는 안되고, 도리어 믿음이 주는 확신을 더욱 강하게 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칼빈의 선택 교리는 교회가 세상에서 봉사하는 동안 필요한 안정, 확신, 저항력, 특별히 위로를 부여한다.¹³⁶⁾

2. 삶의 신학

기독교강요 제3권은 ‘성령의 내적 증거’에 관한 장이다. 이 장은 크게 믿음, 회개,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교리로 이루어져 있다. 이 세 주제에서 알 수 있듯이 칼빈은 성령의 내적 증거를 믿음과 회개, 즉 ‘이신칭의’와 중생에서 끝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믿음과 회개라는 신앙적 고백이 삶의 자리에서 기독교적 삶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날 때로 정의하고 있다. 이것은 성령의 내적 증거는 전인격적인 회심에서 시작하여 삶 전체의 변화로 나타남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칼빈이 성경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기독교적 삶’에 대한 가르침을 1539년 기독교강요 새개정판에 첨가한 것은 자신의 스트라스부르크에서의 목회 경험을 통해 신학이 아니라 성도들의 삶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본 장에서는 기독교적 삶의 선결요건인 ‘믿음과 회개’라는 신앙고백 위에 이루어진 삶의 신학에 대해서만 다루고자 한다.

a. ‘기독교적 삶’의 의미

칼빈은 기독교강요 제3권 서두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구원을 얻기에 합당하게 되며 그에 수반되는 은혜를 받는가?’¹³⁷⁾에 대한 해답을 말한다.¹³⁸⁾

136) Wilhelm Niesel, *Die Theologie Calvins*, 이종성 역, 『칼빈의 신학』, 189-90쪽.

137) 프랑수아 방델, 김재성 역, 『칼빈 그의 신학사상의 근원과 발전』, 278쪽.

138) J. Calvin, *Inst(1559)*, 김종흡 외 3인 역, 『기독교강요』 III, 7쪽.

우리가 이제 검토해야 할 문제는 이것이다. 아버지께서 독생자에게 주신 유익들은 그리스도 자신이 사적으로 쓰시기 위한 것이 아니고 빈곤하고 곤궁한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드시기 위한 것이었는데, 우리는 그 유익들을 어떻게 받는가 하는 것이다. 우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밖에 계시고 우리가 그와 떨어져 있는 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그가 고난당하시며 행하신 일은 모두가 우리에게 무용, 무가치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위의 대답에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이미 그리스도께 주셨으므로, 이제 우리에게 남은 일은 그리스도로부터 이 은혜를 받는 일이다. 이 은혜를 받을 때 우리의 삶의 세상의 삶이 아니라 기독교적 삶이 된다. 칼빈은 은혜를 받는 수단이 바로 성령의 내적 증거라고 말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곧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성령으로부터 받는 믿음은 우리와 그리스도를 연합하게 하고, 이 연합은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받으신 은혜를 조금이라도 누리기 위한 선결 조건이 된다.¹³⁹⁾

둘째는 기독교적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나누어 주기를 위함인듯이 기독교적 삶의 목표도 나누어주기 위함,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주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선포하신 복음에서 밝히 드러났는데, 이제는 기독교적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된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존재이유이며, 사명이다. 성경은 이 목표에 대해 일관되게 증거하고 있으며, 칼빈도 제네바 요리문답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신앙고백으로 요구하고 있다. 특히 사톨레트 추기경에게 보낸 답신에서 기독교적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하였다.¹⁴⁰⁾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열심을 자기 실존의 제1의 목적으로 삼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만 그의 생각을 한정하는 것은 건전한 신학이 아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태어났기 때문이다.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 안에서 존재를 유지하므로, 그것들은 모두 그와 관련시켜서만 생각되어야 한다.... 기독교인이 자기 자신의 영혼구원을 추구하고 확보하는 것 이상으로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본분이다.

139) 프랑수아 방델, 김재성 역, 『칼빈 그의 신학사상의 근원과 발전』, 288쪽.

140) J. Calvin, *OS* 1:363-64.

칼빈에게 있어서 기독교적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통한 은혜의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선택된 백성의 삶이다. 그는 ‘기독교적 삶’의 의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말한다.¹⁴¹⁾

관대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는 우리가 신앙으로 그를 붙잡고 소유하도록 하시려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함으로써 우리는 주로 이중의 은혜를 받는다. 첫째는 무죄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해함으로써 우리가 하늘의 심판자 대신 은혜로우신 아버지를 소유할 수 있다. 둘째는 그리스도의 영에 의하여 성화됨으로써 우리는 흠 없고 순결한 생활을 신장할 수 있다.

b. ‘기독교적 삶’에 관한 주제들

기독교적 삶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표현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신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다. 특히, 칼빈은 그리스도인에게서 기대되는 믿음과 복음주의적 회개에 기초한 생활과 그리고 당시 로마 교회 내에서 표준적인 관례로 시행되던 고행과 선행에 의한 인위적인 생활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음을 분명히 보여 주고 있다.¹⁴²⁾ 그러므로 ‘기독교적 삶’에 관한 주제들은 모든 교회 생활, 무엇보다 ‘제자도’¹⁴³⁾의 기초가 됨을 알 수 있다. 여기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함께 기독교적 삶의 근간이 되는 세 요소¹⁴⁴⁾에 대해 살펴본다.

1) 그리스도인의 자유

칼빈은 기독교강요 제3권에서 ‘기독교적 삶’에 관한 주제들을 설명하고 ‘칭의’와 ‘선행과 확신’이라는 ‘이중 칭의’를 설명한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 설명한다. 그러나 니이젤은 주께 매인 생활이라는 명제인 ‘기독교적 삶’은

141) J. Calvin, *Inst(1559)*, 김종흡 외 3인 역, 『기독교강요』 III, 246쪽.

142) Ronald S. Wallace, *Calvin, Geneva And The Reformation*, 박성민 역, 『칼빈의 사회 개혁 사상』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5), 256쪽.

143) 니이젤은 제자도의 측면에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보았고, 자기 부정, 십자가를 짊, 내세에 대한 목상을 그리스도의 제자도의 세 요소로 보았다.

144) 칼빈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설명할 때, 회개라고 규정한 과정의 특수한 측면들로서 자기 부인, 십자가를 짊, 내세에 대한 목상을 말한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강조한다. 또한 그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뚜렷이 안중에 두지 않고는 기독교적 삶을 논할 수 없다”는 칼빈의 말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¹⁴⁵⁾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하여 신 앞에서 의롭게 된 자로서 신의 자녀의 자유 안에서 살도록 부름을 받았다. 우리는 신의 요구에 반항하는 자에게 해당되는 저주에서 벗어나서 두려움 없이 이 생을 영위할 수 있다. 우리는 신의 율법의 강요에서 자유로우며 우리의 일과(日課)에 위로를 받는다.... 우리는 우리를 위압하는 모든 것에서 자유롭다. 우리는 모든 은총을 감사에 넘치는 심정으로 창조주가 주신 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자의와 인간의 규정에 벗어나는 것이고, 방종이나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을 원하는 질서를 어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과 말씀에 매여 우리를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신 하나님과 우리의 이웃에게 봉사를 실천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약한 그리스도인의 양심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물질적인 풍족한 상태에서 쾌락과 탐심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¹⁴⁶⁾ 특히, 이 때, 우리는 우리가 누려야 할 많은 이익과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포기할 수 있게 된다.

2) 자기 부인

칼빈에게 있어서 자기 부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 보낼 수 있는 대리자로서의 긍지를 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당연히 주체가 있어야 할 곳에 객체를 두는 부당한 자기 사랑을 버린다는 뜻이다.¹⁴⁷⁾ 자기 부인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 드리는 것이다. 또한 나의 소망과 뜻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다. 칼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따라야 할 자기 부인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¹⁴⁸⁾

성경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하여 이중으로 닮아야 한다고 가르

145) Wilhelm Niesel, *Die Theologie Calvins*, 이종성 역, 『칼빈의 신학』, 138쪽.

146) 필립 홀트롭, 박화석, 이길상 역, 『기독교강요 연구핸드북』, 252쪽.

147) 위의 책, 219쪽

148) J. Calvin, *CR* 55:270.

친다. 즉, 우리는 그를 따라 그가 당한 수욕과 고난을 겪어야 하고, 또한 옛 사람은 우리 안에서 죽고 멸절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삶으로 새로워지는 것이다.(빌3:10, 롬6:4) 그러나 우리가 육적인 것을 죽여야 한다고 할 때 그리스도를 단순히 우리의 본보기 정도로 보아서는 안된다. 우리가 진실로 그의 죽으심을 닮아 가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이다. 그래서 우리의 육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이다.

자기 부인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전적인 드림인 동시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는 신앙고백의 자리이다. 바로 이 자리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나타난다.

3) 십자가를 줌

그리스도인이 ‘자기 부인’이라는 신앙고백의 자리를 가질 때, 반드시 십자가를 지는 삶의 외적인 고백, 즉 구체적인 신앙생활로 나타나야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그와 함께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때 자기 부인을 통해 이루어진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더욱 강화된다. 니이젤은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신 분으로 우리가 그 십자가를 그리스도와 함께 지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이다”고 말한다.¹⁴⁹⁾

그러므로 십자가는 단순한 고통이나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영원한 사랑의 확증이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죄로부터 깨끗함과 세상으로부터 자유,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누리도록 하신다.

그것은 참으로 신자들이 슬픔과 시련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친히 누리셨던 영광을 얻게 된다는 말씀을 들을 때 십자가의 고통을 경감시켜 주는 것으로 생각되는 하나의 위로가 된다. 그래서 그들은 왜 그들이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십자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입맞추어야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이유를 알게 된다.¹⁵⁰⁾

특히, 칼빈은 혼련, 징계, 박해라는 개념들을 빌어 십자가를 이야기한다. 혼련으로서의 십자가는 자랑하는 마음을 제해 주고 겸손하게 함으로 전적으

149) Wilhelm Niesel, *Die Theologie Calvins*, 이종성 역, 『칼빈의 신학』, 145쪽.

150) J. Calvin, *CR* 55:27

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그리스도에게 향하게 한다. 징계로서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지난 삶을 돌아보며 회개케 함으로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게 한다. 박해로서의 십자가는 경건의 연습과 그리스도인의 삶에서의 진전을 하도록 한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외면하거나 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즐거운 마음을 져야 한다. 이 때 우리가 걷는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 아니라 영광의 길이 되는 것이다.

4) 내세에 대한 묵상

칼빈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든 것은 오직 내세의 삶에 관계되었을 때, 다시 말하면 고난과 영광을 함께 누릴 때 의미가 있음을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¹⁵¹⁾

어떤 환난이 우리를 압박하든 간에, 우리는 현세를 무시하는데 익숙해지면, 그렇게 됨으로써 내세를 활발하게 명상하기 위한 그 목적을 바라보아야 한다. 우리의 본성이 이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강한 동물적인 애착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하나님께서는 잘 아시고 우리가 이 애착심에 너무 오래 잡혀 있지 않도록 우리를 끌어내시며 우리의 태만을 없애버리기 위해 가장 적당한 방법을 사용하신다.

내세에 대한 묵상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허망함을 느끼게 함으로써, 자기 부인을 완성하고 그리스도인에게 지워진 십자가를 완성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주저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붙잡는다 할지라도 이에 사로잡히지 않게 된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눈 뜨도록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을 일깨워 준다.¹⁵²⁾

그러므로 우리는 나그네로 이 땅을 살고 있다는 인식 속에서 세상적인 삶을 경멸하는 것을 습관화함으로 내세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져야 한다. 특히, 칼빈은 세상에 대한 경멸은 오직 미래의 삶과 대조가 될 때만 정당화되며, 기독교적 삶은 세상에서 위축되어서는 안되며, 결코 현재의 생활을 증오하거나

151) J. Calvin, *Inst(1559)*, 김중흠 외 3인 역, 『기독교강요』 III, 229쪽.

152) 존 H. 리스, *John Calvin's Doctrine of Christian Life*, 이용원 역, 『칼빈의 삶의 신학』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6), 89쪽.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저버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또한 현세의 삶은 그 삶의 불행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참여하는 선한 권리이며, 이 현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아버지이심을 입증하고 있으시기에 여기에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미래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현재 누릴 것을 말한다.¹⁵³⁾

3. 선교신학

a. 종교개혁자들의 선교이해

데이비드 보쉬는 각 시대별로 선교 패러다임이 존재하며, 중심된 선교본문이 있음을 말한다. 그는 “헬라·교부시대의 선교본문은 요한복음 3:16이고, 중세 카톨릭의 선교본문이 누가복음 14:24이라면 개신교 신학 패러다임의 선교본문은 로마서 1:16¹⁵⁴⁾이다”고 말한다.¹⁵⁵⁾

이 말 속에서 우리는 오늘날 개신교 선교가 로마서 1:16의 복음을 새롭게 발견하고 교회와 세상 가운데 실현해나간 종교개혁가들로부터 출발했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종교개혁사상은 17세기 경건주의 운동과 18세기 모라비아 교도들의 선교운동의 뿌리를 제공하였다. 무엇보다 성경번역과 더불어 평신도들이 모국어로 성경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은 위대한 선교 세기를 이룬 개신교 선교 사역의 근원적인 배경이 되었다.¹⁵⁶⁾

종교개혁은 복음의 재발견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재발견하는 운동이다. 그 중심에 선행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 이신칭의 교리가 있다. 이 교리가 하나님의 의한 선교와 하나님의 의한 교회성장의 출발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악한 세상에서 잃어버린 자들을 구출해야 하며, 복음에 대한 주관적인 고백이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선교의 타당성을 제공하였다. 여기에 만일제사장직의 발견을 통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

153) 프랑수아 방델, 김재성 역, 『칼빈 그의 신학사상의 근원과 발전』, 303쪽.

154)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155) David J. Bosch, *Transforming Mission*, 김병길, 장훈태 역, 『변화하고 있는 선교』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0), 373쪽.

156) 최수일, 『간추린 기독교 선교역사』 (서울: 예영 커뮤니케이션, 2003), 133-34쪽.

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소명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성장의 근간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이 선교에 무관심했다는 비판과 선교의 자리가 있는냐는 의구심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선교학의 아버지인 구스타프 바르넥은 다음과 비판한다.¹⁵⁷⁾

우리는 개혁자들에게 단지 선교 활동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날 이해하는 선교의 개념조차도 찾아볼 수 없다. 근본적인 신학적인 개념들이 그들의 활동과 생각이 선교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을 가로막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이다. 특별히 슬픈 것은 세상에 나가 선교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개혁자들이 결코 안타까워하지 않았다는 것과 한마디 변명의 말도 결코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비판은 아무리 개혁자들의 신학이 복음의 새로운 이해를 통해 근본적으로 선교적인 강조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종교개혁 이후 2세기 동안에 개혁교회의 선교사역이 거의 나타나지 않기에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이 처한 당시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어느 정도는 이해하게 된다.

첫 번째, 당시 교회와 국가 사이의 관계의 문제가 있었다. 데이비드 보쉬는 종교개혁 당시의 교회와 국가 사이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¹⁵⁸⁾

종교개혁은 재세례파를 제외하고는 실제로 교회와 국가 사이의 관계에 대한 중세의 이해와 절교하지 않았다. 콘스탄틴 이후로 기독교 국가와 교회와 국가 사이의 협력뿐만 아니라 그 상호 의존의 개념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다. 카톨릭 통치자들은 유럽의 일부 지역들에 대한 그들의 통치권을 상실했다. 그 대신에 이 지역들은 루터파, 개혁파, 또는 성공회 왕들에 의해 통치되었다. 유일한 차이점은 개신교도들이 “교황 교회에 의한 절대권력의 행사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교황권 반대자들에 의한 권력 행사는 옳다”고 믿은 점이었다. 종교 전쟁은 어느 교파가 주어진 지역에서 최고의 지배력을 행사할 것인지를 확립하기 위해 일어났다.

이와 같은 교회와 국가 사이의 관계로 인해 16세기 종교개혁 당시, 프랑

157) David J. Bosch, *Transforming Mission*, 김병길, 장훈태 역, 『변화하고 있는 선교』, 378쪽.

158) 위의 책, 373쪽.

스에서는 로마 카톨릭 교회 외에는 이단으로 보았고, 독일에서는 루터파 교회 외에는 이단으로 보게 만들었다. 그리고 종교 전쟁과 같은 상황은 전쟁에서의 승리가 곧 종교개혁의 승리이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로 하여금 생존을 위한 전쟁에 참여하게 만들었다. 이것이 개혁교회가 선교에 눈을 돌릴 수 없게 한 외적인 상황이다.

두 번째, 종교개혁 교회들 자체가 처한 혼란스러운 내적 상황의 문제가 있었기에 교회를 개혁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보았다.¹⁵⁹⁾ 제1, 2차 제네바 목회에서 알 수 있듯이 비록 종교개혁을 하였다고 하지만 여전히 교회 성원들이나 시민들은 로마 카톨릭과 종교개혁 측이라는 반목 가운데 있었다. 이 상황이 그대로 정치적으로 연결되어 교회개혁은 결국 정부개혁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더더욱 혼란스러운 문제들이 야기되었다. 칼빈도 이런 문제로 인해 제1차 제네바 목회 이후에 추방당하고 말았다. 이런 상황에서 종교개혁자들은 모든 힘을 쏟아 교회의 질서와 안정에 집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세 번째, 종교개혁자들의 복음의 이해, 즉 이신칭의에 대한 강조가 선교의 이해와 발전에 새로운 출발점이 된 반면에 선교노력을 마비시키기도 했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구원하려는 인간적인 노력이 신성모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종교개혁자들 간의 끊임없는 갈등과 분열, 그리고 그동안 중요한 선교기관의 역할을 한 수도원 운동을 포기함으로써 종교개혁의 현장을 넘어 선교를 향한 전진을 할 수 없었다.

b. 칼빈의 선교신학

칼빈의 젊은 동시대인 화란의 신학자인 아드리안 사라비아는 “대 위임령이 교회에 계속 구속력이 있으며 기독교 경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가 전파하는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 우리가 마태복음 28:19의 대 위임령을 순종할 때 우리가 마태복음 28:20의 예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있다”고 선교의 대위임령을 주창하였다.

이처럼 종교개혁 당시의 많은 장애물로 인해 구체적인 선교사역이 나타

159) 위의 책, 380쪽.

나지는 못했지만 종교개혁자들에게서 선교의 자리는 분명히 존재하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칼빈도 교회의 선교사명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쉴라터 교수가 1909년 「복음주의 선교잡지 제53호」에 기고한 “칼빈과 선교”라는 글과 보훔의 에른스트 피스테르 교수가 1534년 「일반선교시대」에 기고한 “칼빈의 선교사상”이라는 글에서 “칼빈은 이론과 실제에 있어서 교회의 선교적 책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¹⁶⁰⁾

칼빈은 기독교강요 제4권 1장 서두에서 교회의 역할을 정의할 때, ‘복음의 전파’와 가르치는 사역의 제도가 신앙을 일깨우고, 교회공동체의 구성원들의 집단적인 성화를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칼빈의 있어서 복음은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용납받을 수 없는 타락한 인간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구원을 누리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 복음을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하나의 지체가 됨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와 본질적인 나눔을 하게 된다.

칼빈의 복음 이해는 통전적인 선교와 교회성장의 기본개념이 된다. 그러나 칼빈의 예정론에 대한 많은 오해들은 선교의 무용론으로 여겨져 비판받게 하였다. 여기에 대해 즈웨머는 칼빈의 예정론이 선교를 막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그의 설교와 기독교강요를 인용해서 “복음의 초대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갈망하신다. 그러므로 전세계에 복음을 전파할 의무는 예정론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¹⁶¹⁾

최윤배 교수도 다음과 같이 예정론에 대해서 말한다.¹⁶²⁾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이미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다. 교회 안에서의 복음 선포의 상황, 선택의 영, 즉 성령의 현재적 활동, 구원의 확실성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에 대해 말한 후에야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원 전 선택을 말할 수 있다. 칼빈의 관심은 전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이지, 유기가 아니다.

칼빈의 예정론은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선교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160) 장훈태, “선교신학”, 『최근의 칼빈 연구』(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263쪽.

161) 위의 책, 272쪽.

162) 최윤배, 『The Theology of Calvin』(장로회신학대학교신학대학원), 57쪽.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해야 한다는 선교의 사명감을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루터의 이신칭의 교리가 하나님의 선교의 출발점이라고 한다면, 칼빈의 예정론은 개신교 선교 역사 속에서 엄청난 선교 역사를 일으킨 하나님의 선교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의 많은 신학자들이 칼빈의 선교사상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장훈태 교수의 글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¹⁶³⁾

에드워즈는 “종교개혁은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국제적인 규모의 선교였다”고 묘사한다. 요하네스 반덴버그는 종교개혁 당시 교회가 행하던 모든 사역을 하나의 선교적 사건으로 봄으로써 “종교개혁과 선교적 사명은 어떠한 명백한 구분이 없다”고 설명한다. 클루스터는 “종교개혁은 모든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국내 선교 사업 중의 하나로 여길만하다”고 주장한다.

리처드 C. 잼블은 종교개혁의 험난함 속에서 칼빈의 행했던 목회 중 선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¹⁶⁴⁾

제네바에서 칼빈의 목회의 결실들 중 하나는 선교활동과 시에 도착한 빈민들에 대한 구제활동이었다. 당시의 기록을 보면 제네바는 종교적 난민들의 피난처로 가장 유명했음이 분명하다. 또한 우리는 제네바가 다수의 잘 훈련된 선교사들을 파송했는데 주로 프랑스로 보냈지만 심지어 브라질까지 간 경우도 있음을 알고 있다. 자신들의 신앙 때문에 순교한 선교사들의 기록도 현재 남아있다.

특히, 그가 세운 제네바 아카데미를 통해 많은 유학생들을 양육하여 다시 본국으로 파송하는 선교적 기관으로 사용하였다. 허버트 케인은 “칼빈은 교육을 통하여 유럽을 복음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브라질에 선교사를 파송하기도 했다”고 언급하였다. 이렇게 볼 때 칼빈의 신학과 목회에 분명한 선교신학과 선교사역이 자리 잡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B. 칼빈의 목회

163) 장훈태, “선교신학”, 『최근의 칼빈 연구』, 275-76쪽.

164) W. Sranford Reid, *John Calvin His Influence in the Western World*, 홍치모, 이훈영 옮김, 『칼빈이 서양에 끼친 영향』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3), 68쪽.

칼빈의 목회는 제1차 제네바 목회, 3년 동안 스트라스부르크 프랑스 이민 목회, 2차 제네바 목회로 이루어진다. 특히 스트라스부르크 프랑스 이민 목회는 목회자로서의 회심의 기간이었고, 결국 제2차 제네바 목회를 위한 성공의 발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칼빈의 목회는 결국 제네바 목회라고 할 수 있다.

1. 제 1, 2차 제네바 목회

1536년 7월, 칼빈이 스트라스부르크로 가기 위해 제네바에 잠시 머물 때, 당시 제네바 교회의 개혁운동을 주도하고 있었던 기욤 파렐과 만나게 된다. 이 만남은 칼빈으로 하여금 제네바 교회의 개혁 운동의 중심에 서도록 하였다. 칼빈은 이 때의 만남을 ‘시편 주석’(1557)에서 다음과 같이 회상하고 있다.¹⁶⁵⁾

내가 이제 은거하려고 했던 스트라스부르크에 가는 최단 지름길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폐쇄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 제네바에서 하루 이상을 머물지 않고 빨리 그 곳을 지나가려고 했다... 내가 몇 가지 개인적 연구를 위해서 자유를 얻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듣고 난 뒤에 그의 간청으로는 아무 것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나서, 그는 이렇게 큰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에 내가 돕기를 거절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휴가와 평안을 저주할 것이라는 저주의 말까지 했다. 이 말에 너무나도 놀라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나는 계속하던 여행을 포기하고 말았다. 여기서 나의 수줍음과 소심함을 느꼈지만, 어떤 특정한 직무를 그런 식으로 소홀히 해버리는 것은 아니었다.

이 예기치 않은 특별한 만남이 이론적 종교개혁자로 있었던 칼빈을 제네바 교회 중심의 종교개혁적인 목회를 하도록 하였다.

a. 제1차 제네바 목회 : 1536~1538

칼빈의 제네바 목회는 그가 말했듯이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상태, 미완성인 상태에서 시작하였다. 비록 제네바 시의회가 1536년 5월 “복음에 따라 산다”는 선언을 하였지만 여전히 로마 카톨릭 측과 종교개혁 측의 갈등 속에 있었다.¹⁶⁶⁾ 이런 가운데 개혁자들은 제네바 교회를 종교개혁사상에 따라 새롭게 조직

165) J. Calvin, *CO* 31, 26

166) Jean Cadier, *Calvin, l'homme que Dieu a dompte*, 이오갑 역, 『칼빈, 하나님이 길

하며 확고한 기반을 세워야 하는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었다.

그의 시작은 보잘 것 없었다. 그의 교회사역은 제네바 교회의 성경 봉독 자라는 직책을 가지고 ‘성서강독’이라는 몇 개의 강의를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였다. 여기에 파렐과 동해애하면서 그의 신학교문의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곧 설교를 하고 교회조직에 참여했으며, 주석과 교의 및 설교와 교회의 재조직에 주도권을 가지고 일을 해 나갔다.¹⁶⁷⁾ 이때, 가장 중요했던 그의 일은 그때까지 혼란 속에 있던 제네바 교회의 직제로서 세워진 “조문(Articles)”을 작성한 것이었고, 1537년 1월16일 “소의회”에 제안되었고, 3월 13일에 채택되었다. 조문의 내용을 크게 세 가지인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¹⁶⁸⁾

첫째, 성만찬의 매주일 시행이다. 그러나 의회는 일 년에 네 차례 거행되는 것을 고집했다. 특히 칼빈은 성만찬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닌 사람들에 의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견책과 훈련을 설정했고, 이를 위해 감시인을 세우도록 했다. 둘째, 회중 전체에 의해 불리지는 시편 찬송을 다루었는데, 교회 일반인들의 기도와 찬미의 표현으로 되돌아왔다. 셋째, 어린이가 자신들의 신앙을 증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린이 교리문답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말하였다.

이와 함께 불어판 ‘제네바 요리 문답’과 제네바의 모든 시민과 거주민, 그리고 지방의 모든 시민이 존중하고 지키기로 선서해야 하는 “제네바 신앙고백”을 확정하였다. 그러나 이 고백은 제네바에 남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의무조항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찬참여의 조건과 함께 그가 조문과 신앙고백에서 동일하게 주장하는 “출교”의 기준이 되었다. 여기에 영적인 권위와 성찬의 지침을 시행하는 권리가 어디에 귀속되는지의 문제가 대두되었다.¹⁶⁹⁾

결국 이 문제가 로마 카톨릭 진영의 저항과 시의회와의 갈등을 야기했고, 선거에서 패배하게 되었다. 결국 시의회 총회는 1537년 7월 공공도덕을 감독하는 일은 정치권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고,¹⁷⁰⁾ 1538년 4월 23일 칼빈과 파렐의 추방을 결정하였고, 칼빈은 바젤로 떠나게 되었다.¹⁷¹⁾

들인 사람』(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5), 92쪽.

167) 프랑수아 방델, 김재성 역, 『칼빈 그의 신학사상의 근원과 발전』, 58쪽.

168) Jean Cadier, *Calvin, l'homme que Dieu a dompte*, 이오갑 역, 『칼빈, 하나님이 길들인 사람』, 95-98쪽.

169) 위의 책, 102쪽.

170) 프랑수아 방델, 김재성 역, 『칼빈 그의 신학사상의 근원과 발전』, 61쪽.

171) 장 카디에, 이오갑 역, 『칼빈, 하나님이 길들인 사람』, 103쪽.

b. 제2차 제네바 목회 : 1541~1546

칼빈은 1538년 9월 5일에 스트라스부르크에 도착하여 만 3년을 머물었는데, 이곳에서 그는 목회자로서, 개혁가로서의 깊고 넓은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 토대는 결국 제2차 제네바 목회의 성공의 주춧돌이 되었다. 그는 칼빈은 부처의 협박적 권유¹⁷²⁾로 스트라스부르크에 있는 프랑스 이민 교회의 목사로 취임하여 목회하면서 1538년 11월에 성찬식을 집례하였다. 또한 기독교강요 재판(1539)과 로마서 주석(1540)을 출판하고, 1541년에 라틴어 기독교강요 초판(1536)을 불어로 번역, 출판했다. 이 기간 동안 독일에서 열렸던 종교간의 대화 모임들에 참가하여 견문을 넓히고, 로마 카톨릭 신학자들은 물론, 많은 다른 종교 개혁자들, 특히 루터파 종교개혁자들을 만나게 되었다.¹⁷³⁾

그러나 칼빈이 떠난 제네바의 상황은 좋지 않았다. 교회의 생활은 무질서하게 되었고, 새롭게 결성된 개혁파 단체인 “파렐 기욤파”와 행정당국 간의 갈등과 함께 사들레토 추기경이 서신을 통해 제네바 시민들에게 카톨릭 교회의 품으로 돌아오라는 회유가 있었다. 이 문제들을 계기로 다시 칼빈은 제네바와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특히 그의 반박문은 지지자들이 많아지게 했고, 1540년 10월 20일 시의회는 칼빈에게 되돌아올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했고, 1541년 9월 13일에 다시 제네바에 도착했다.¹⁷⁴⁾

칼빈은 제2차 제네바 목회는 24년 동안 이루어졌고, 그의 엄청난 업적은 시대와 지역을 넘어 영향을 주고 있다. 그는 제1차 제네바 목회 때와는 열렬한 환대와 함께 영적인 지도와 목사들의 권위를 존중하게 하는 자유를 누렸다. 또한 제네바 교회의 설교단에 올라 중단되었던 부분을 펼치고 강해를 계속하였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주어진 권한과 자유를 가지고 제네바 교회 조직과 정통성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그가 제네바에 도착한 지 한 달 후인 1541년, ‘교회 칙령’이 의회에서 채택되었는데, 교회와 교회조직에 대한 정당성이 서문에 잘 나와 있다.¹⁷⁵⁾

172) 칼빈은 시편주석(1557) 서문에서 “파렐이 나에게 행했던 그와 같은 방법으로 부처는 나를 다시 새로운 임지로 초청했다”고 말한다.

173) 최윤배, 『The Theology of Calvin』, 14쪽.

174) 프랑수아 방델, 김재성 역, 『칼빈 그의 신학사상의 근원과 발전』, 78-79쪽.

175) J. Calvin, *Opp.*, 10a 16, n. 1.

주님께서 말씀으로 제정하시고 보여주신 것처럼 영적인 통치기관이 아름다운 형태로 세워져서, 우리들 가운데 확고히 정착되고, 존중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부터 세워진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의 마을과 영토 안에서는 교회의 통치를 복종하고, 따르고, 유지시키기 위해서 질서를 준수하고 확립하여야 한다.

칼빈의 목회가 평탄한 것은 아니었다. 특별히 1541년에서 1564년까지 20여 년에 걸쳐 시 정부 사이에 출교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었다. 그는 정부와 교회의 두 권력의 구분을 확신했지만, 정부는 교회의 판결에 대한 선포권을 계속해서 유지하고자 했다. 이 뿐만 아니라 칼빈은 복잡한 주변 정세와 수많은 신학적 논쟁들 가운데 서 있었다.

그럼에도 1561년 11월, 개정된 교회법령은 “시 당국의 검과 권위와, 교회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순종과 하나님께 대한 참예배로 나오도록 하고, 부끄러운 행위를 통제하고 교화시키는 일을 행해야 하는 감독권과의 차이에 대해 성경에서 보여주는 구분”을 다루는 조문들을 통해서 칼빈이 교회의 독립성과 정통성을 확보했음을 보여준다.¹⁷⁶⁾

2. 칼빈의 교회적인 권징

칼빈의 제네바 목회 당시, 제네바 시 정부는 주민이 모두 다 동시에 교인이었기에 교회 권징에 해당되는 모든 사항에 권리를 행사했다. 그러나 1561년 교회헌법을 통해 교회의 교인과 제네바의 시의 시민이 더 이상 동일시되지 않게 되었다.¹⁷⁷⁾ 이를 기점으로 교회적인 권징의 자리가 독립적으로 마련되기 시작했고, 이제는 교회의 개혁이 곧 제네바 전체 개혁으로 영향을 주게 되었다. 그러므로 칼빈이 세운 교회적인 권징은 교회를 넘어 사회까지 영향력을 주었다는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

칼빈은 권징을 1561년 이후에 독립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지만, 그는 제1차 제네바 목회 때부터 권징을 ‘주님의 만찬을 존중하는 마음’이라는 개념 속에서 시행하고자 했다.¹⁷⁸⁾

176) 프랑수아 방델, 김재성 역, 『칼빈 그의 신학사상의 근원과 발전』, 124쪽.

177) Otto Weber, *Die Treve Gottes in der Geschichte der Kirche*, 김영재 역, 『칼빈의 교회관』 (서울: 도서출판 이레서원, 2001), 88-89쪽.

주께는 한 몸이 있을 뿐이며 우리를 모두 그 몸에 참여하게 하시므로, 이 참여에 의해서 우리가 모두 한 몸이 될 필요가 있다... 아무 형제라도 상하게 하거나 멸시하거나 배척하거나 박대하거나 그 밖의 어떤 모양으로든지 넘어지게 한다면, 우리의 비행은 반드시 그와 동시에 그리스도를 상하게 하거나 멸시하거나 박대하게 된다. 우리의 형제들과 불화하면 반드시 동시에 그리스도와 불화하게 된다.

칼빈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로서의 특성을 보존하고자 한다면 권징이란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여겼다.¹⁷⁹⁾ 말씀이 모욕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목사와 장로들은 교인 각자를 돌보아야 하며 각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도록 하였다.¹⁸⁰⁾ 특히, 그는 권징의 서로 구별되면서도 상호보완적인 세 가지 목적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¹⁸¹⁾

첫째,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려는 배려 때문이다.

둘째, 악한 자들과의 대화(행동)를 통하여 선량한 사람들이 타락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출교를 당하여 치욕을 겪는 자들을 회개케 하고, 또 그러한 회개를 통하여 그들을 교정하고자 하는데 있다.

칼빈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가운데 있는 교인들이 현재 죄인의 상태로 있기에 더욱 권징을 통해 교회가 거룩한 교회를 향해 나아가도록 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권징이 교회 안의 도덕성을 높이는 것이나, 흠과 티가 없는 교회를 만드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한다. 한 교회가 참 교회인가는 그것이 도덕적으로 훌륭한 상태에 있는가 없는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¹⁸²⁾

결론적으로 칼빈은 교회의 존립은 교회의 규율의 적용 없이는 어렵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¹⁸³⁾

178) J. Calvin, *Inst(1559)*, 김종흡 외 3인 역, 『기독교강요』 IV, 507-09쪽.

179) 칼빈은 교회의 권징을 중요시 했지만 참된 교회의 표지로 삼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권징은 교회의 개념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 아니다.

180) Wilhelm Niesel, *Die Theologie Calvins*, 이종성 역, 『칼빈의 신학』, 196쪽.

181) 프랑수아 방텔, 김재성 역, 『칼빈 그의 신학사상의 근원과 발전』, 363-64쪽.

182) Wilhelm Niesel, *Die Theologie Calvins*, 이종성 역, 『칼빈의 신학』, 197쪽.

183) J. Calvin, *Inst(1559)*, 김종흡 외 3인 역, 『기독교강요』 IV, 279쪽.

그리스도의 구원의 교훈이 교회의 생명인 것같이, 권징은 그 근육이며 이 근육에 의해서 몸의 지체들이 서로 결합되고 각각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권징을 폐지하거나 그 회복을 막으려고 하는 사람은 - 고의로 하든지 또는 모르고 하든지 간에 - 결국 교회를 해체시키는데 이바지하게 된다.

3. 칼빈의 교육

칼빈에게 있어서 교육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교회를 통한 교회 교육이고, 다른 하나는 교육기관을 통한 교육이다. 그는 제네바 목회 기간 동안 이 두 교육을 매우 적절하게 사용함으로써 교회, 사회를 넘어 여러 나라에까지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게 하였다.

먼저 교회 교육을 살펴보면, 칼빈은 교회를 하나님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부르시고 그 안에서 그들을 양육하시는 장, 그리스도의 학교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¹⁸⁴⁾ 그리고 교회 교육을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적절한 여건을 사람의 마음속에 조성해 준다고 보았다. 이 때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의존하는 것임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¹⁸⁵⁾

하나님께서 일순간에 그의 백성을 완전하게 만드실 수 있지만 그들이 교회에서 교육을 받음으로써 장성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손을 통하여 주시는 영적 양식을 멸시하는 사람이 모두 굶주려 멸망하는 것은 당연하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일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신앙을 심어주며 성장시키는, 기독교 생활의 시작, 성장 그리고 조성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그는 기독교적 삶에 대한 지식을 얻고 싶어하는 인간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와 율법과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 충족된다고 말한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성취요, 예수 그리스도와 율법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¹⁸⁶⁾

184) 존 H. 리스, *John Calvin's Doctrine of Christian Life*, 이용원 역, 『칼빈의 삶의 신학』, 195쪽.

185) J. Calvin, *Inst(1559)*, 김종흡 외 3인 역, 『기독교강요』 IV, 14쪽.

186) 존 H. 리스, *John Calvin's Doctrine of Christian Life*, 이용원 역, 『칼빈의 삶의 신학』, 53쪽.

또한 하나님과 말씀과 더불어 성찬과 세례를 계속해서 사용함으로써 교회 안에서 우리의 기독교 신앙을 성장시키고자 하였다. 칼빈은 성례와 성찬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¹⁸⁷⁾

성례는 우리의 전체 기독교 생활에 영향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더 충만하게 소유하며 그의 충만 가운데서 그를 즐길 수 있게 해준다. 성찬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자라게 하고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의도된 것이다.

그리고 칼빈은 ‘사람은 모여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듣고 공기도를 드리며 신앙고백을 해야 한다’는 선언한 제네바 요리문답 교육을 예배 다음으로 강조하였다.¹⁸⁸⁾ 그는 사역 초기부터, 아이들에 대한 학교 교육과 교리 문답 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었고, 이를 위해 1537년 첫 번째 교리문답서인 『신앙교육』(*Instruction in the Faith*)이란 책을 썼다. 폴 푸르만은 이 책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¹⁸⁹⁾

진실로 본 작품은 초판 기독교강요에 대한 칼빈 자신의 요약이다. 본 저서의 제목이 말하듯이 이 책의 내용은 전적으로 건설적이다. 즉, 이 책은 로마 카톨릭 신학에 대한 공격이나 논쟁을 삼가고 기독교 신앙의 적극적인 주장들을 제시한다. 이 책의 목적은 영적인건설과 종교적 교육을 목적으로 한다. 칼빈의 이 초기 작품은 개혁주의적 기독교의 살아있는 신앙을 간결하고 명석하게, 그리고 고결하고 위엄 있게 서술한다.

다음으로, 교육기관을 통한 교육을 살펴보면, 칼빈은 제2차 제네바 목회 기간을 통해, 특히 1541년 ‘교회칙령’을 통해 교육체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제네바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견고히 서게 된 후에 칼빈은 대학을 설립하는 일에 주의를 돌렸다.¹⁹⁰⁾

187) Ronald S. Wallace, *Calvin's Doctrine of Christian Life*, 나용화 역, 『칼빈의 기독교생활 원리』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8), 259-60쪽.

188) 존 H. 리스, *John Calvin's Doctrine of Christian Life*, 이용원 역, 『칼빈의 삶의 신학』, 191쪽.

189) J. Calvin, *Instruction in the Faith(1537)*, 이형기 역, 『칼빈의 신앙교육서』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1), 8쪽.

190) Ronald S. Wallace, *Calvin, Geneva And The Reformation*, 박성민 역, 『칼빈의 사회 개혁 사상』, 139쪽.

당시 제네바에는 목사양성을 위한 신학교와 어린이들을 가르치기 위한 학교가 있었는데, 이것이 모체가 되어 1559년 제네바 아카데미가 창설되었다.¹⁹¹⁾ 이 아카데미는 정부관리 양성과 목회자 양성하는 데 있었다. 당시 인문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돕기 위한 학문으로 인식되었는데, 인문학 교육을 받은 전문성 있는 목회자 양성을 하였다.¹⁹²⁾ 아카데미 과정은 7단계 과정으로 이루어진 ‘스콜라 프리바타’라는 대학과 ‘스콜라 푸블리카’라는 대학을 마친 후의 과정인 학술원으로 구성되었다.

제네바 아카데미가 문을 열자 600명의 학생들이 몰려들었고, 첫 해의 등록자수는 900명이었다. 전 유럽에서 몰려온 이들 중 몇몇 유명한 교수들과 학생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통해 그들의 본국에서도 종교개혁 사업이 수행됨으로 종교개혁의 지경이 전 유럽, 그리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되었다.¹⁹³⁾

결론적으로 칼빈은 교회를 통한 교육을 통해 교회개혁을 통한 사회개혁을 이루어나갔고, 교육기관을 통한 교육을 통해 교육받은 목회자를 배출하는 동시에 나라를 위한 믿음의 일꾼을 배출함으로 교회개혁과 사회개혁을 이루어 나갔다. 이 점에서 칼빈은 단순히 교회를 위한 목회자가 아니라 세상을 품는 목회자였다고 볼 수 있다.

191) Jean Cadier, *Calvin, l'homme que Dieu a dompte*, 이오갑 역, 『칼빈, 하나님을 길들인 사람』, 124쪽.

192) Ronald S. Wallace, *Calvin, Geneva And The Reformation*, 박성민 역, 『칼빈의 사회 개혁 사상』, 143쪽.

193) W. Stanford Reid, *John Calvin His Influence in the Western World*, 홍치모, 이훈영 역, 『칼빈이 서양에 끼친 영향』, 52쪽.

VI. 칼빈의 신학과 목회에 나타난 교회성장 연구

지금까지 칼빈의 신학 중 교회론, 삶의 신학, 선교신학을 살펴보았으며, 칼빈의 목회 중에 제네바 1차, 2차 목회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교회성장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신학은 성령론이다. 그런데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성령의 내적 증거로서 삶의 신학을 먼저 언급한 후에 성령의 외적 사역으로서의 교회론을 말한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존재뿐만 아니라 모든 사역이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데, 성령의 내적 증거의 결과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칼빈의 삶의 신학은 기독교적 삶을 통해 성령의 외적 증거의 범주를 교회를 넘어 사회와 국가까지 지경을 확장하였다. 제네바 목회에서 살펴보았듯이 성령의 내적 증거와 외적 증거가 통합되어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함으로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 속에서 신앙과 삶의 개혁이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다.

그러므로 본 장은 앞에서 다룬 교회성장의 정의와 형태 그리고 교회성장원리를 통해 칼빈의 신학과 목회에 나타난 교회성장원리를 찾고자 한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칼빈도 교회성장학자들이 동일하게 교회의 존재와 성장을 가능케 하는 보편적인 원리로 성령을 말하기 때문이다.

A. 칼빈의 신학과 교회성장

필립 홀트롭은 그의 저서 「기독교 강요 핸드북」 서론에서 칼빈의 신학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¹⁹⁴⁾

「기독교 강요」는 교리와 삶, 신학과 경건을 통합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각 교리가 ‘우리를 위해’ 제공하는 유용성 또는 유익을 일관되게 강조한다. 그러므로 칼빈의 신학은 ‘경건 신학’이라고 부를 수 있다. 단 칼빈에게서 ‘경건’이 금욕적이고 개인적이고 피안적인 게 아니라면 말이다. 칼빈이 말하는 경건은 모든 창조계와 문화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사회적이고 책임 있는 존재인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선한 삶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다.

결국 칼빈의 신학은 교회론에서 출발하여 삶의 신학, 즉 사회적이고 책

194) 필립 홀트롭, 박화석·이길상 역, 『기독교강요 연구핸드북』, 13쪽.

임 있는 존재로서 모든 선한 삶에 참여하는 기독교적 삶으로 귀결된다. 이 과정은 교회성장이 추구하는 과정과 목표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1. 칼빈의 교회론과 교회성장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칼빈의 교회론은 “신자들의 어머니인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선택된 백성인 교회”인데, 세 가지 모두 교회성장의 신학적 근거이다.

먼저 “신자들의 어머니인 교회”에 대해 칼빈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받은 자격 없는 교회에 위임하시고 다음과 같은 ‘구원을 위한 모성적 사역’을 하도록 하셨다고 강조한다.¹⁹⁵⁾

우리는 지금 가건적 교회를 논할 생각이므로 교회를 아는 것이 얼마나 유용하고 얼마나 필요한가를 “어머니”라는 단순한 칭호에서 배워야 한다. 이는 이 어머니가 우리를 잉태하고 낳으며 젖을 먹여 기르고 우리가 이 육신을 벗고 천사같이 될 때까지 보호 지도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생명으로 들어갈 길이 없기 때문이다. 연약한 우리는 일평생 교회에서 배우는 자로 지낸 동안 이 학교에서 떠나는 허락을 받을 수 없다. 그뿐 아니라, 교회의 품을 떠나서는 죄의 용서나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따라서 교회를 떠나는 것은 언제든지 비참한 결과를 초래한다.

여기서 “구원을 위한 모성적 사역”은 교회성장에 있어서 교회의 양적 성장을 위한 원동력인 질적 성장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짐을 말한다. 하나님은 “신자들의 어머니인 교회” 안에서 교회에게 이행하라고 명령하신 사역들, 특히 목사들과 교사들을 통해서, 설교와 성례라는 정상적인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대한 그리고 우리 안에서 사역을 계속하신다. “구원을 위한 모성적 사역”의 의미가 이광순 교수의 ‘교회성장’ 정의 중 마지막 부분에 잘 나타난다.¹⁹⁶⁾

교회성장은 교회와 그 구성원들, 곧 교인들을 수적으로 증가시키고 질적으로 성숙시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교회성장은 한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고 그와 새로운 관계를 맺

195) J. Calvin, *Inst(1559)*, 김종흡 외 3인 역, 『기독교강요』 IV, 13-14쪽.

196) 교회성장 정의는 이광순 교수의 ‘교회성장학’ 강의록을 참고하였다.

게 함으로써 그들을 신실한 교인이 되게 하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교인의 수적 증가에 따라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고 그 수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교회 성장은 교회와 교인들이 영적으로 거듭나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으로 성화를 성취하고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완수하도록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이 되도록 성숙시키는 것이다.

애디 김스도 통전적 성장을 위한 4가지 요소¹⁹⁷⁾ 중 *Growing Up* 성장에서 강조한다. 이 성장은 사도행전 2:42¹⁹⁸⁾에 나타나는 예루살렘교회의 ‘디다케’를 통한 교회성장을 말하는데, 교인들의 영적, 인격적 성숙을 통하여 그들의 신앙이 증진됨으로써 통전적 교회성장의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다. 결국 교인들로 하여금 더욱 훌륭한 헌신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고, 교회와 세상과의 이중적 삶이 아니라 교회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삶을 살도록 한다.¹⁹⁹⁾

두 번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교회의 공동체적 본질을 강조하는데, 칼빈은 사람의 몸을 이용한 유비를 통해 공동체의 유기적 본성을 보여준다. 그는 교회공동체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공동체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교회가 독특한 특성의 원천을 가졌음과 신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루는 신비하고 인격적인 연합을 강조하였다. 또한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모든 지체들은 상호의존성을 가진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²⁰⁰⁾

아무도 다른 사람에게서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자신의 내부에 충분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우리가 모두 공동의 유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은사들을 각기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아무도 자기에게 주어진 특별한 분량에 만족하여 다른 사람에게서 스스로 떨어져 나가 혼자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는 모든 것을 주시지는 않는 것이다.

칼빈은 한 몸이지만 많은 지체로 되어 있다는 교회의 공동체적 특성을 강조하면서 다양성 속에서 함께 일하는 조화를 동시에 강조한다. 와그너도 교회조직에 있어서 서로 서로 섬기기 위하여 함께 모이는 세포조직을 강조하였다. 특

197) 통전적 성장을 위한 4가지 요소는 *Growing Up* 성장, *Growing Together* 성장, *Growing Out* 성장, *Growing More* 성장이다.

198)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행 2:42)

199) 박보경, “통전적 관점의 교회성장과 전도,” 『선교와 교회성장』, 140-41쪽.

200) 존 H. 리스, *John Calvin's Doctrine of Christian Life*, 이용원 역, 『칼빈의 삶의 신학』, 187-88쪽.

히, 에디 깁스는 *Growing Together* 성장을 통전적 교회성장을 위한 요소로 설명하는데, 이 성장은 사도행전 2:46²⁰¹⁾에 나타나는 예루살렘교회의 ‘코이노니아’를 통한 성장이다.²⁰²⁾ 여기서 칼빈과 에디 깁스가 다른 것은 칼빈은 교회적인 권징과 교육을 통해 교회의 공동체성을 이루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선택된 백성인 교회”는 교회의 존재에 대한 신적 기초로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으로의 삶, 무엇보다 ‘하나님의 살롬’을 세상 속에서 이루어야 하는 사명을 갖는 교회공동체를 이루도록 한다. 론 니콜라스는 사도행전 2:42-27에 나타나는 예루살렘 초대교회공동체의 생활을 근거로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필수적인 요소인 양육, 예배, 공동체적 교제, 전도에 힘썼다고 강조한다.²⁰³⁾ 또한 사도의 신학을 주창한 호켄다이크는 선교의 중심이 교회가 아니라 세계이며, 교회의 과제는 선포, 친교, 그리고 봉사라고 말하면서 결국 봉사로 나아가고 있다.²⁰⁴⁾

그러므로 “선택된 백성인 교회”는 세상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감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교회공동체 신학을 넘어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을 말하는 칼빈의 삶의 신학과 기독교적 삶으로 연결이 된다. 특히 “선택된 백성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함께 교회성장학자들이 동일하게 건강한 교회성장의 가장 작은 공동체 단위로 말하는 소그룹 또는 셀 사역의 신학적 근거가 된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칼빈의 교회론은 교회성장의 유형 중 내적 성장과 밀접한 관계를 두면서도 외적 성장을 상호 보완적으로 말하는 통전적 교회성장원리가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칼빈은 “교회는 그것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에게 신앙을 고백하며, 그를 위하여 결단을 내리고 그의 영광을 드러낼 때만 생명을 가지는 것이고, 내·외적인 성장의 가능성을 얻게 된다”²⁰⁵⁾고 분명히 말한다.

201)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행 2:46)

202) 박보경, “통전적 관점의 교회성장과 전도,” 『선교와 교회성장 2003』, 142쪽.

203) Ron Nicholas, *Good Things Come In Small Groups*, 신재구 역, 『소그룹 운동과 교회성장』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1986), 26쪽.

204) David J. Bosch, *Witness To The World*, 전재욱 역, 『세계를 향한 증거』 (서울: 두란노, 1992), 210쪽.

205) 존 H. 리스, *John Calvin's Doctrine of Christian Life*, 이용원 역, 『칼빈의 삶의 신학』, 181쪽.

2. 칼빈의 교회성장원리로서의 묵상과 기도

앞에서 다룬 칼빈의 교회론은 교회성장을 이루는 주체로서의 교회를 말한다. 다시 말해 교회 성장의 신학적 근거를 교회론의 입장에서 서술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적인 교회의 성장, 특히 선택된 백성인 교회로서의 교회론은 교회 구성원인 성도들이 내적성장을 통해 책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구체적으로 교회와 삶 가운데서 사역할 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성도들의 내적 성장을 이루는 대표적인 도구가 바로 ‘묵상’과 ‘기도’이다.²⁰⁶⁾

칼빈에게 있어서 기독교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과 인도를 받아 사는 삶이며,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과 훈계가 우리 자신의 부패한 본성과는 맞지 않을지라도, 아주 유순한 정신으로 그것의 가르침에 자신을 맡기어 그것의 교훈에 의해 다스림 받고 단련되는 자이다.²⁰⁷⁾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그 말씀에 의하여 지도받기에 가장 심각하고 어려운 갈등 속에서도 말씀을 찾게 되어 다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 칼빈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묵상’이다.

칼빈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정신적 인식적 기능들을 시키고, 결국 다른 기능들이 사랑과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어 우리의 삶이 크게 성화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묵상하는 일을 게을리 하거나 전혀 생각하지 아니한 채 그저 설교를 들으러 가거나, 구원의 교리를 가르침 받는 것으로는 좋은 기독교인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칼빈은 ‘묵상’을 기독교인의 의무인 동시에 권리임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²⁰⁸⁾

낮이나 밤이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고 전적으로 그의 사랑에 빠질 것이 우리에게 부여되어 있다. 그분만이 이 사랑을 갖고 계시고 이 사랑을 우리에게 넉넉히 주실 수 있다. 그리스도의 사랑보다 더 견고하고 유용한 것, 한마

206) 칼빈의 묵상과 기도는 삶의 신학의 실천적 모습으로 삶의 신학,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적 삶에 위치한다. 그러나 본 고에서는 묵상과 기도를 교회론에서 삶의 신학으로 넘어가도록 하는 다리로 보고 삶의 신학 앞서서 살펴본다.

207) Ronald S. Wallace, *Calvin's Doctrine of Christian Life*, 나용화 역, 『칼빈의 기독교생활 원리』, 270쪽.

208) Ronald S. Wallace, *Calvin, Geneva And The Reformation*, 박성민 역, 『칼빈의 사회 개혁 사상』, 318쪽.

디로 올바르고 건전한 것은 결코 없다.

특히 칼빈은 앞에서 언급한 ‘내세에 대한 묵상’과 함께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묵상을 통한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함양할 것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관한 묵상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함양할 것을 당부한다. 또한 묵상을 통해 말씀에 의한 끊임없는 자기 검토를 하도록 한다.

또한 칼빈은 ‘참되고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에서 생기는 것으로 보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주요하면서도 영속적인 연습이라고 말한다.²⁰⁹⁾ 칼빈은 기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죄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인간적인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게 되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교가 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칼빈의 묵상과 기도의 강조는 동일하게 오늘날 교회성장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다. 찰스 안은 교회가 유기체적이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가를 알아볼 수 있는 지표들 중에 첫 번째 지표를 ‘기도에 대한 강조’로 말한다²¹⁰⁾.

교인은 매우 헌신적으로 기도해야 하며 또한 기도는 단체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리고 소그룹 형태로 할 수 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기도는 또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있어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한다. 사람들은 기꺼이, 진실하게 기도해야 한다.

또한 앞에서 언급했듯이 크리스티안 슈바르츠는 세 번째 질적 특성으로 ‘열정적 영성’을 말하는데, 그리스도인의 기도 생활을 조사해봄으로 기도가 영감 있는 경험이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참된 관계를 더욱 풍성히 하기에 교회의 질적, 양적 성장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열 가지 실천 단계 중 1단계인 ‘영적 계기를 마련하라’로 연결하여 “기도, 그리스도께 대한 헌신,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개인적 교제가 모든 활동의 중심이 되지 않으며, 우리의 수고는 단지 열매 없는 분주함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²¹¹⁾

209) Ronald S. Wallace, *Calvin's Doctrine of Christian Life*, 나용화 역, 『칼빈의 기독교생활 원리』, 341쪽.

210) 이재범 편저. *Church Growth State of the art*, 이재범 역, 『교회성장학개론』, 128-29쪽.

211) Christians A. Schwarz, *Natural Church Development*, 정진우 역, 『자연적 교회 성

결론적으로 칼빈의 ‘묵상’과 ‘기도’는 성도로 하여금 어떤 유혹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적 성숙과 성장을 이루도록 하며, 이를 바탕으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도록 하는 교회성장원리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애디 깁스가 말한 교인들의 영적, 인격적 성숙을 통하여 그들의 신앙이 중진됨으로써 통진적 교회성장의 기초를 마련하는 *Growing Up* 전략과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칼빈은 참된 기도와 참된 묵상은 결국 성령의 은사이기에 성령의 인도함이 없는 내적 성장은 있을 수 없음을 말한다. 그는 성령론의 큰 틀 속에서 교회론과 삶의 신학을 말하면서 다시 교회론과 기독교적 삶을 이루는 원동력으로 묵상과 기도를 통한 성령의 은사와 역사를 말한다. 여기서 우리는 칼빈의 성령론의 범주가 교회성장학자들의 교회성장원리로서의 성령의 은사와 역사의 범주를 넘어서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칼빈의 교회성장원리로서의 삶의 신학

칼빈은 인간이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때 그들의 삶이 그 기원과 운명에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러나 칼빈의 주된 관심과 출발점은 인간의 자연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그들의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그것을 인간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역사하심에 따라 부름을 입고 나온 택함 받은 자들의 공동체들이다. 그리고 이 공동체가 기독교적 삶의 실제적인 장이 되는데, 바로 교회와 사회이다.²¹²⁾

교회를 장으로 하는 기독교 삶과 교회성장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칼빈의 교회론과 교회성장의 관계에서 살펴보았다. 결국 칼빈의 ‘삶의 신학’의 핵심은 교회 속에서의 기독교적 삶, 다시 말해서 내적 성장을 통한 사회 속에서의 기독교적 삶이다. 기독교적 삶은 ‘자기 부인’, ‘십자가를 짊’, 그리고 ‘내세에 대한 묵상’을 기본 요소로 이루어지는데, 이 요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관계가 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은 교회가 순수하여 그를 유일하신 주님으로 인정해야 할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²¹³⁾

장』, 106쪽.

212) 존 H. 리스, *John Calvin's Doctrine of Christian Life*, 이용원 역, 『칼빈의 삶의 신학』, 177-78쪽.

칼빈은 모든 사람이 사회에 대하여 실질적인 책임을 진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면서 기독교적 삶의 요소 중의 ‘자기 부인’의 실천을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연결하였고, 인류의 연대 책임성을 강조하였다.²¹⁴⁾ 특히 그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한 공동체로 결속하시고 연합시킴을 통해 각자가 주의를 기울여 자기 이웃을 섬기고, 공동체를 유지하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해주는 정의의식을 유지하도록 하신다”고 말한다. 여기서 칼빈의 사회 속에서의 기독교적 삶은 참으로 구체적임을 알 수 있다. 그는 이웃됨의 덕에 관한 덕에서 다음의 글은 그를 현실주의자로 보게 하기도 한다.²¹⁵⁾

그러므로 기회가 있을 때는 언제라도 그 사랑을 실지로 보여주지 않으면 아무도 그의 형제를 참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첫째 명제로 삼자. 둘째는 누구든지 도울 수 있는 힘이 미치는 정도까지 그의 형제를 도와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셋째는 모든 사람이 필수품을 누릴 수 있게 돌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는 참된 동정심이 동반되지 않고는 어떤 친절한 행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제네바 경제·사회적 상황이 침체의 늪에 빠져있을 때 주저하지 않고 의회 앞에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고리대금이 항상 이웃을 압제하는 데로 기울어지고 있음을 경고하였다. 더 나아가서 직접 제네바의 정치·경제적인 일들에 관여하였다. ²¹⁶⁾

특히, 칼빈은 비록 현대적인 의미에서 선교라고 부를 만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지만 사회적인 관련에서 기독교적 삶은 선교의 역할을 포함한다고 보았다. 그는 자신의 신앙을 증거하는 것은 모든 기독교인들이 담당해야 할 의무라고 강력히 주장하는데, 1537년 훈령집에서 제네바 모든 시민에게 요구하였다. 또한 마태복음 28:19의 주석에서 그는 세계 방방곡곡에서 구원의 교리를 전해야 할 의무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은 그의 복음을 전파하고 확대시키려고 우리를 부르신다고 말한다.

그러나 개신교회들이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기 위하여 목숨을 건 투쟁을

213) 위의 책, 222쪽.

214) 위의 책, 196쪽.

215) J. Calvin, CR 55 : 340-41.

216) 존 H. 리스, *John Calvin's Doctrine of Christian Life*, 이용원 역, 『칼빈의 삶의 신학』, 209-10쪽.

했기에 해외 선교활동에는 무관심하였던 것은 명백하지만 브라질 해안에 건설한 프랑수아 식민지를 위한 사역자 요청에 응답하여 파송하였다.

결론적으로 칼빈은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종교개혁 당시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교회개혁과 해외선교가 거의 나타나지는 않지만 칼빈의 신학에서 통전적 교회성장의 모습을 분명히 발견하게 된다. 그는 기독교인이 단순히 한 시민이 아니라 기독교 정신을 가진 시민이 되기를 기대한 것이다. 여기서 칼빈의 기독교적 삶은 에디 김스가 주장한 *Growing Out* 성장 전략과 같은 맥락이다. 이 성장은 사도행전 2:45²¹⁷⁾에 나오는 예루살렘교회의 디아코니아를 통한 성장으로, 세상과 교회의 주변 지역 사회 안에서의 기독교인들의 봉사를 통한 성육신적 삶을 통한 성장이다.²¹⁸⁾

맥가브란도 교회성장의 원인으로 ‘인근에 살고 있는 비기독교인’을 말하면서 한 교회의 생동력을 인지하고 그것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교회의 교인들의 친지나 이웃들이 기독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묻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다고 강조하였다.²¹⁹⁾

이와 같은 맥락은 올라도 코스타스가 말한 통전적 성장에서 구체적으로 강조된 바 있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과 이웃과 자연과의 화해를 내포한 새로운 삶의 질서를 말하면서 교회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화시켜야 하며, 이를 통해 사도적 공동체로서의 넓이에 있어서의 성장, 예배하고 양육하는 공동체로서의 깊이에 있어서의 성장,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한 새로운 삶의 질서의 표시로서의 높이에 있어서의 성장을 이루어야 함을 주장한다.²²⁰⁾ 그럼에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내적 성장을 통한 외적 성장에만 관심을 가짐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세상을 향한 영향력을 넓히지 못하는 것은 교회성장의 올바른 길을 걷고 있지 않음을 기억해야 한다.

217)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 주며”(행 2:45)

218) 박보경, “통전적 관점의 교회성장과 전도,” 『선교와 교회성장』, 143쪽.

219) Donald A. McGavran, *Understanding Church Growth*, 전재욱, 이요한, 김종일, 『교회성장이해』, 231쪽.

220) Orlando. E. Costas, *The Integrity of Mission*, 진희근 역 『통합적 선교신학』(서울: 예장총회 교육부, 1982), 87-88쪽.

B. 칼빈의 목회와 교회성장

칼빈의 목회와 교회성장을 다루기 앞서 칼빈의 일차적인 목회 대상인 교회성도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당시 제네바 교회의 성도들은 제네바 시의 정치적 관계 상황과 마찬가지로 크게 로마 카톨릭 성도들과 개신교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결과 선거의 승패가 곧 제네바 시뿐만 아니라 제네바 교회에 그대로 영향을 주었다. 그러기에 제네바 교회의 성도들은 인종, 언어, 문화의 간격은 동일함 속에서 정치와 연결된 서로 배타적인 서로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특별한 정체성을 가진 성도들이다. 그러므로 칼빈의 목회는 단순히 교회 목회가 아니라 오늘날의 상황화 신학이 적용되는 정치와 종교의 특별한 상황 속에 일어난 종교개혁임을 알게 된다.

1. 칼빈의 제네바 목회와 교회성장

칼빈은 제네바 교회를 담당하는 목회자이다. 비록 그가 제네바 시의 여러 사안에 기꺼이 관여하였지만 그의 우선적인 관심과 헌신의 대상은 언제나 교외와 교인들, 그리고 이들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구현이다. 이것은 보편적인 목회자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다. 칼빈의 목회는 결국 종교개혁을 통해 발견된 복음 위에 다시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즉, 칼빈의 목회는 교회갱신이며, 교회론을 바로 세우고, 믿음과 회개에 기초한 기독교적 삶을 살게 하는 것이다.

이광순 교수는 “교회 갱신 없이는 선교도 없다. 왜냐하면 교회 갱신은 선교의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고 교회갱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교회갱신을 “낡고 퇴락한 교회를 신앙적으로 새롭게 재생시켜서 다시 헌신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갱신의 셋째 단계와 넷째 단계를 교회성장과 관계하여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²²¹⁾

셋째는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을 받고 내면적인 새로움을 체험하고 외적으로 이웃과 화해하는 단계이며, 마지막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나아가서 교회 밖으로 선교를 하는 단계이다. 이러한 단계를 거치는 교회 갱신은 이처럼 궁극적으로 복

221) 이광순, 『한국 교회의 성장과 저성장』 (서울: 미션아카데미, 2005), 48-49쪽.

음 전파라는 선교의 결실을 맺음으로 마무리 짓는다.

교회갱신은 회개와 회심을 통해 일어나는데, 그래서 일종의 연쇄적인 순환 과정을 형성한다. 즉, 회개는 교회를 갱신시키고, 교회갱신은 선교를 불러일으키며, 선교는 다시 회심으로 이어진다. 이 과정은 칼빈의 기독교적 삶의 과정과 동일함을 알 수 있다. 결국 이 과정은 교회성장의 유형에 있어서 내적성장을 말한다. 이 내적 성장의 출발점은 어디인가?

와그너는 건강한 교회의 살아 있는 일곱 표적 중에 교회성장을 주도하는 기본적인 촉매 역할을 목사가 한다고 말하면서 ‘겸손에서 나온 자기 부인의 모습’과 ‘사랑으로 얻은 권위’를 특징으로 설명하다. 특히, 이와 같은 목사의 모습은 목사를 사랑하는 교인을 낳고, 결국 목사와 교인 사이에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사랑의 관계가 형성됨을 강조한다.²²²⁾

제네바 교회의 내적 성장은 칼빈의 목회자로서 회개와 회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칼빈은 제1차 제네바 목회에서 실패를 경험한 후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이루어진 3년의 이민 목회를 통해 목회적 회개와 회심을 하였다. 그래서 제네바로 귀환할 당시 환영식에서 “나는 제네바를 섬기기 위하여 여기에서 있습니다. 내가 섬김의 이 직분을 수행할 수 있기 위하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세워져야만 합니다”라고 자신의 목회사역의 목적을 겸손하게 말하였다.²²³⁾

이 결과 과거 자신의 추방하였던 반대자들에 대한 어떤 처벌이나 질책 없이 양을 사랑하는 목자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제네바 사람들은 평온함을 얻게 되었다. 그들은 칼빈을 내적 분쟁으로 상처입은 도시와 교회를 회복시킬 능력을 소유한 목회자로 신뢰하게 되었다. 특히, 칼빈의 귀환을 위해 힘썼던 기욤파는 대적자들에 대한 처벌을 바랬는데, 이 때도 그는 일관되게 “복수심에 찬 일당의 우두머리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움을 입은 모든 사람들의 목자로서” 자신을 나타내 보여 주기를 원했다.

로날스 S. 웰리스는 칼빈의 목회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²²⁴⁾

222) C. Peter Wagner, "Your Church Can Grow", 권달천 역, 『교회성장원리』, 75-81쪽.

223) Emanuel Stickelberger, *John Calvin*, 박종숙, 이은재 역, 『하나님의 사람 칼빈』(서울: 도서출판 나단, 1992), 113쪽.

224) Ronald S. Wallace, *Calvin, Geneva And The Reformation*, 박성민 역, 『칼빈의 사

칼빈 주변에 있던 제네바 사람들은 그에게 영적인 위로와 확신을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또한 각 개인이 매일의 생활에서 믿음과 순종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에 대해 지도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칼빈은 그들의 이러한 요구를 기쁘게 받아들였으며, 그들과 인격적으로 대등한 입장에서 도덕적이면서 헌신적인 지도를 해 주었다. 이점에서 칼빈의 가르침이 그의 노력과 저술을 통해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받은 공동체들의 정신과 문화를 특징지었음은 분명하다. 실제로 티렐치는 칼빈의 영향력이 “모범적인 인간상”을 낳았으며, 이것은 “심지어 오늘날의 유럽 문명 전체”와 또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끼쳤다고 단언했다.

칼빈은 교회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며, 또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들이 올바르게 시행되는 곳에 있음을 말한다. 특히 그리스도께서 말씀 선포를 통해 자신의 교회를 불러내어 서로 결합시키실 뿐 아니라 자기 백성들의 마음을 통치하신다고 강조한다.²²⁵⁾ 즉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서 칼빈의 회심은 제네바 교회의 내적 성장을 이루는 초석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제네바 교회에 네 직제를 세움으로 교회의 내적 성장을 구체적으로 실행하였다. 네 직제는 목사, 박사(교사), 장로, 그리고 집사로서, 제네바 교회는 네 직제를 통해 사도행전 속에 나타나는 네 가지 기본 활동인 설교, 빈자의 구제, 교구의 인도 그리고 교육의 자리를 되찾게 되었다.²²⁶⁾ 칼빈이 제정한 4대 직분과 사역 내용은 다음과 같다.²²⁷⁾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 권면, 훈계함과 동시에 성례를 집전해야 한다. 교사는 “신자들에게 건전한 교리를 가르치고”, “젊은이들을 목회와 시정을 위해 준비”시킨다. 장로는 모든 사람들의 생활을 감독하고 무질서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을 사랑으로 권면하며 필요할 경우 총회에 보고하여 형제적인 교적을 담당한다. 집사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돌보고 구걸을 그만두게 하는 직무를 받았다.

회 개혁 사상』, 254쪽.

225) 위의 책, 186쪽.

226) Jean Cadier, *Calvin, l'homme que Dieu a dompte*, 이오갑 역, 『칼빈, 하나님이 길들인 사람』, 131쪽.

227) W. Sranford Reid, *John Calvin His Influence in the Western World*, 홍치모, 이훈영 옮김, 『칼빈이 서양에 끼친 영향』, 65쪽.

칼빈은 제네바 시에 대한 사회 개혁을 교회 개혁을 통해 이루었고, 교회 개혁은 말씀의 대언자이며 교회의 목자로 부름 받은 목사를 통해 추진해 나감을 알 수 있다. 이 점은 교회성장학자들이 동일하게 강조한 교회성장원리로서, 와그너는 건강한 교회의 살아 있는 일곱 표적의 첫 번째 원리로 목사를 강조했고, 자연적 교회성장도 여덟 가지 질적 특성 중의 첫 번째 원리로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을 강조하였다. 더 나아가서 모든 교회성장원리들은 같은 맥락에서 건강한 사역자를 세우기 위한 양육시스템을 강조하고 있다.

2. 칼빈의 교회성장원리로서 교회적인 권징

칼빈은 교회의 구성원들을 인도하고 도와서 성화에 이르게 하는 것을 교회의 임무 중에 한 부분으로 보았다. 비록 하나님의 은총의 예정 가운데 신자와 그리스도 간의 연합은 영원하지만, 그는 그들이 이러한 결속을 깨뜨리지 말 것과 하나님의 은총을 배척하지 말 것 그리고 스스로 영원한 멸망에 빠지지 말 것을 경고하였다.²²⁸⁾

그러므로 칼빈은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자기 성찰을 통해 모든 오류를 고쳐나가고, 또한 교회의 교인들의 문제에 있어서 교회적인 권징을 행해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 그는 교회적인 권징을 교회의 가르침의 순결성을 유지하고 성화에 이르려는 신자들의 노력을 보존하기 위한 중요한 목회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였다²²⁹⁾.

칼빈은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본연의 특성을 보존하려면 불가피하게 권징을 행해야 하는데, 필요한 이유를 다음 두 가지로 설명한다.²³⁰⁾

첫째, 권징은 신자가 육체를 십자가에 못박고, 굴복시키고, 그로써 최후 부활에 대비하는 성화에 도움이 된다.

둘째, 권징은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이자 만물을 다스리시는 승천하신 주의 위엄을 보호한다.

228) Ronald S. Wallace, *Calvin, Geneva And The Reformation*, 박성민 역, 『칼빈의 사회 개혁 사상』, 283쪽.

229) 프랑수아 방델, 김재성 역, 『칼빈 그의 신학사상의 근원과 발전』, 36-162쪽.

230) 필립 홀트럽, 박희석, 이길상 역, 『기독교강요 연구핸드북』, 337쪽.

칼빈은 교회적인 권징을 참 교회의 표지로 보지 않았지만 교회적인 권징을 행해야만 참 교회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교회적인 권징을 통해 교회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이 이름을 존귀케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결함과 거룩함을 지키며, 무엇보다 저급한 행동을 한 뒤에 회개하고 개선하도록 하고자 하였다.²³¹⁾

더 나아가서 칼빈은 교회개혁을 통해 제네바 사회까지 개혁하려 했다. 그의 개혁방식은 교회 치리를 이용하는 것이었다. 칼빈의 치리의 목적은 신자들의 집단으로서의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내의 기독교인 개개인을 보호하며 또한 범법자들을 회개시키려는 것이었다.

치리방식은 처음에는 범법자를 사적으로 권면하고 다음에는 증인들 앞에서 권면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권면을 듣지 않을 경우에는 파문한다. 파문이라는 중대한 판결은 오직 가장 악질적인 범법자에게만 내려졌다. 치리의 목적 중 하나가 범법자를 회개시키는데 있었음으로 지역사회는 처벌받는 사람들을 대할 때 신중을 가해야 했음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목사들 자신도 치리를 모면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교회는 한층 더 보호되었다. 제네바에서 치리를 계속하는 칼빈의 의도는 도덕적 쇄신을 기하려는데 있었다.²³²⁾

그러므로 칼빈의 교회적인 권징은 교회 성장에 있어서 내적 성장을 넘어서고 있다. 교회적인 권징은 에디 김스가 말한 *Growing Up* 성장을 통해 세상 가운데서 성육신 삶을 사는 *Growing Out* 성장으로 나아가게 하는 교회성장의 원리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칼빈의 교회적인 권징은 오늘날 교회에서 사실상 기능을 상실하였기에 칼빈의 교회적인 권징이 교회성장원리로 적절치 않다고 판단될 수 있다. 하지만 칼빈의 교회적인 권징을 칼빈이 행한 목회적인 권면의 한 부분으로 생각한다면 지금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교회성장원리라고 말할 수 있다. 제네바에서 수년 동안 칼빈과 가장 가까이 지냈던 한 동료는 칼빈이 보여준 목회적인 권면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²³³⁾

231) 위의 책, 338쪽.

232) W. Sranford Reid, *John Calvin His Influence in the Western World*, 홍치모, 이훈영 역, 『칼빈이 서양에 끼친 영향』, 66쪽.

233) Ronald S. Wallace, *Calvin, Geneva And The Reformation*, 박성민 역, 『칼빈의 사회 개혁 사상』, 247쪽.

나는 어떤 말로도 그가 다른 사람을 권면할 때 보여준 성실함과 겸손함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는 자신을 찾아온 모든 이들을 친절하게 맞이하였습니다. 나는 그가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타락에 빠져 괴로워하고 있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보여준 그의 관대함을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칼빈의 교회적인 권징은 법적인 측면에서 사실상 기능을 상실했지만 목회적인 권면의 측면과 양육적인 측면, 특히 ‘리더십’과 ‘멘토링’이라는 형태로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박건 목사는 교회내의 멘토링 시스템의 적용에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미래 교회 목회의 대안으로 멘토링을 제시한다. 그는 교회에서의 멘토링을 크게 ‘정착 멘토링’, ‘양육 멘토링’, ‘훈련 멘토링’을 설명하는데, 대그룹을 통해서든지, 소그룹을 통해서든지, 일대일 관계를 통해서든지 멘토링 사역을 통해 서로 돕고 섬기고 배우게 되어 결국 교회에서의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고 성장하게 됨을 말한다.²³⁴⁾

3. 칼빈의 교회성장원리로서 교육

칼빈은 교육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는데 본질적으로 충분하지는 않지만 치리와 함께 교회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인 동시에 목회의 큰 도구로 생각했다. 먼저 칼빈은 교육의 근본이 되는 성경을 부단히 그리고 주의깊게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²³⁵⁾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날마다 가르침을 받고, 성경이 우리에게 확증해주는 교훈을 받아야 한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과 확신 있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힘은 곧 약해질 것이다. 만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교훈을 부지런하게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다시금 불타오를 것이다

무엇보다 칼빈은 사람들이 신앙의 기본 원리들에 대해서 반드시 배워야만 하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할 필요가 있음을 절감하였다. 그래서 1537년 제네바 1차 목회 때 자신의 첫 번째 교리 문답서인

234) 박건, 『멘토링 사역과 멘토링 목회』 (서울: 나침반, 2006), 18쪽.

235) Ronald S. Wallace, *Calvin, Geneva And The Reformation*, 박성민 역, 『칼빈의 사회 개혁 사상』, 289쪽.

『신앙교육』을, 1545년 제네바 2차 목회 때 제네바를 위한 교리문답서를 편찬하였다. 그가 섬머세트 공작에게 보낸 편지에서 교리문답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²³⁶⁾

공작이시여! 정말입니다. 교리 문답이 없이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보존되지 못할 것입니다. 참된 기독교는 문자로 된 양식으로 가르쳐져야만 합니다. 그러한 교리 교육은 일치를 도모하며, 일부 목사와 부목사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사람들이 “교만한 자들”에 의해 미혹되지 않게 해줍니다.

무엇보다 칼빈은 목사의 역할을 중요시하여 1542년 채택된 제네바 법령을 통해 매주 성경에 관한 모임에 나가도록 했으며, 이 모임을 통해 상호간에 일어날 수 있는 교리상의 견해 차이를 조정하도록 했다.²³⁷⁾ 이 모임은 칼빈이 아카데미의 세우고자 했던 열정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준다.

교회교육과 함께 칼빈은 한 사람과 한 그리스도인의 훈련에 있어서 고전의 연구를 가능하면 완전하고도 광범위하게 교육해야만 한다는 필요성 속에서 학교 설립에 총력을 기울여서 1559년 제네바 아카데미를 설립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칼빈은 학교를 통해 고도로 높은 지적 수련을 거쳐서 목회자들을 훈육시켜 배출해 내는 일이 교회의 주요 임무 중에 하나임을 가르쳐 주었다.²³⁸⁾ 무엇보다 교회교육과 학교교육을 통해 교회를 넘어 제네바 시까지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내었다.

결론적으로 칼빈의 교육은 오늘날의 교회 안에 제한되어 있는 교회교육이 아니라 일반적 교회교육과 함께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지도자를 양성하는 학교교육이다. 또한 모든 칼빈의 목회적인 권면과 치리 역시 칼빈의 교육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칼빈의 교육은 단순히 교회 내의 일꾼 양성을 위한 양육시스템을 넘어서며, 맥가브란의 교회성장원리인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나 사회 속에 기독교 문명을 정착시키는 기독교화를 위한 과정인 제자화와 완전화 단계와 같은 맥락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칼빈의 교육은 내적 성장과 함께 교회와 사회를 함께 변화시키는 사회적인 책임이 강조된 통전적인 교회성장 원리임을 알 수 있다.

236) 위의 책, 140쪽.

237) 프랑수아 방델, 김재성 역, 『칼빈 그의 신학사상의 근원과 발전』, 89쪽.

238) 위의 책, 123쪽.

Ⅶ. 결론

지금까지 칼빈의 신학과 목회에 나타난 교회성장을 살펴보았다. 칼빈의 신학과 목회에 나타난 교회성장을 연구하기 위해서 먼저 교회성장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교회성장의 기원, 정의 그리고 교회성장의 형태가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특히 교회성장의 형태에 있어서 양적 성장, 내적 성장과 함께 통전적인 성장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교회성장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기에 찾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하기 위해 교회성장의 성서적 배경과 함께 추수의 신학이라는 신학적 근거를 살펴보았다.

무엇보다 교회성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위임령에 대한 교회의 충성이요, 헌신이요, 교회의 응답이다. 특히 교회의 응답은 시대와 문화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먼저 교회성장학의 문을 연 동시에 학문으로 확립시킨 맥가브란과 피터 와그너의 전통적 교회성장학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현대에 나타난 여러 교회성장이론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특별히 과학적인 조사를 기초로 하고 교회에 대한 생태학적인 해석과 접근을 통해 건강한 교회의 질적 특성을 이론화한 자연적 교회성장의 교회성장이론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를 구현한 셀그룹과 양육시스템을 통한 리더 양육을 통한 교회성장을 말하는 셀교회의 교회성장이론을 살펴보았다.

비록 각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전통적 교회성장학과 현대에 나타난 교회성장이론들이 등장하였지만, 선교와 복음전도를 위해 출발한 교회성장운동이 건강한 교회를 추구하는 교회내적인 방향으로 점차 지경이 좁아지는 것도 발견하게 된다.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사명이 작아지고 모이는 교회로만 남아 있으려고 한다.

이런 가운데 교회성장학은 지금도 수적 성장을 추구하는 인간의 기법들과 프로그램 중심의 이론이라는 비판을 여전히 받고 있다. 또 많은 교회들이 오직 교회의 수적이고 양적 성장을 위해서 교회성장이론의 방법들만 도입하기에 더욱 교회성장이론들은 비판의 대상이 된다. 특히 복음의 재발견,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개신교 신학의 측면에서 볼 때, 교회성장학은 신학 없는 학문이요, 단지 실용주의와 시장원리를 따르는 이론으로 치부되고 있다.

이제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무엇보다 교회성장이 시

작된 지 반세기를 지나가는 시점에 왔다. 이 때 교회성장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찾아야 한다. 교회성장은 개신교 선교역사 속에서 제국주의적 선교와 씨뿌리기 식의 선교에 대한 반성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대위임령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출발하였다. 특히 한국교회에서 교회성장은 한국인들의 필요, 특히 시대와 상황에 따른 필요를 채우는 과정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 성장, 발전하였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교회는 성도들의 숫자와 교회의 건물에 치중하는 가운데 세상의 필요를 외면하여 왔다. 한국교회가 가졌던 장점마저 잃어가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성장이 종교개혁과 개신교 선교 역사의 큰 흐름 속에 있음을 발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칼빈의 방대한 신학 가운데 그의 신학의 토대가 되는 교회론, 교회의 지경을 세상으로 확대한 삶의 신학, 그리고 선교신학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칼빈의 신학과 제네바 목회에 나타난 교회성장을 살펴보았다.

무엇보다 신학적 측면에서 칼빈의 세 가지 교회론, 묵상과 기도, 기독교적 삶과 목회적 측면에서 교회적인 권징과 교육은 칼빈의 대표적인 교회성장원리이다. 이 원리를 통해 여러 가지 종교개혁 당시의 상황으로 인해 구체적인 선교의 모습을 발견되지 않았지만, 교회갱신으로 표현되는 교회성장의 모습과 교회개혁을 통한 사회개혁을 동시에 이루어냈다. 그러므로 칼빈의 제네바 목회는 초대 교회 공동체로서의 교회 회복과 사회적 책임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 나가는 통전적 교회성장의 실례라 할 수 있다.

1974년에 발표된 로잔 언약의 제5항은 교회의 전도와 사회적 책임에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²³⁹⁾

우리는 복음전도와 사회적 관심을 무시하거나 상호 배타적이라고 생각하여 왔음을 유감으로 표명한다. 비록 사람과 사람과의 화해가 하나님과의 화해가 아니고 사회적 행동이 전도와, 정치적 해방이 구원과 동일시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도와 사회, 정치적 참여는 똑같이 기독교인의 의무임을 천명한다. 이 두 가지는 신론과 인간론의 본질적인 표현이며 이웃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종의 필수적인 표현이기 때문이다. ... 우리가 받는 구원은 우리로 하여금 개인적, 사회적 책임을 지도록 변화시켜야 한다.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앞으로 한국교회는 단순한 성장이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

239) 김영동, 『교회를 살리는 선교학』 (서울: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3), 113-14쪽.

그리고 전도와 사회적인 책임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구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야 한다. 그러나 이와 함께 그동안 한국교회, 특히 교회성장이 가지는 신학적이고 목회적인 약점을 해결해야 한다.

본고는 교회성장의 일반적 이해와 지금까지 등장한 대표적인 교회성장 원리의 측면에서 칼빈의 신학과 목회를 살펴봄으로 한국교회가 추구해야 하는 교회성장의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다. 특히 과거 한국교회의 선교 역사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했던 한국교회의 삶의 신학을 칼빈의 삶의 신학과 기독교적 삶에 비추어 회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인적인 교육과 성장을 이루어낸 교육과 교회적인 권징이라는 교회성장원리를 한국교회가 갖추어야 한다. 이와 함께 북미선교회 연구 책임자인 에드 스테처 목사의 “교회성장운동은 말씀의 가르침과 성령의 능력에서 얻어낸 신학적, 선교학적 균형을 찾아야 한다”²⁴⁰⁾는 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할 때 한국 교회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루어냈던 믿음과 하나님 말씀 중심의 공동체를 회복하게 될 것이고, 모이는 교회로서의 교회 공동체의 건강성을 회복하여 흠어지는 교회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헌신과 충성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에 다시금 부흥의 역사를 주시리라 확신한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대위임령을 수행하기 위해 지경을 넘고, 문화를 넘고, 종교를 넘어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것이다. 21세기 한국교회에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사명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40) 에드 스테처, “미 교회성장의 현주소를 진단한다” 『월간 교회성장』 (2006.1), 43쪽.

참 고 문 헌

1. 서양 번역 서적

- Bosch, David J. *Transforming Mission*, 김병길, 장훈태 역, 『변화하고 있는 선교』.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0.
- _____, *Witness To The World*, 전재욱 역, 『세계를 향한 증거』. 서울: 두란노, 1992.
- Brickman, Leslie H. *Natural Church Development and Cell Church*, 『셀교회와 자연적 교회 성장』. 서울: 도서출판 NCD, 2004.
- Castellanos, Cesar . *G-12 Leadership*, 서효정, 홍주연 역, 『G-12 리더쉽』. 서울: 도서출판 NCD, 2002.
- Cadier, Jean. *Calvin, l'homme que Dieu a dompte*, 이오갑 역, 『칼빈, 하나님 이 길들인 사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5.
- Calvin, John. *Instruction in the Faith(1537)*, 이형기 역, 『칼빈의 신앙교육서』.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1.
- _____.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1559)*, 김종흡 외 3인 역, 『기독교강요』 III, IV. 서울: 생명의 출판사, 1986.
- Comiskey, Joel. *Home Cell Group Explosion*, 박영철 역, 『셀그룹 폭발』. 서울: 도서출판 NCD 2004.
- _____. *From 12 To 3*, NCD 편집부 역, 『G12 셀그룹 업그레이드』. 서울: 도서출판 NCD, 2006.
- _____. *Groups of Twelve*, 정진우 역, 『G12 이야기』. 서울: 도서출판 NCD, 2000.
- Costas, Orlando. E. *The Integrity of Mission*, 진희근 역 『통합적 선교신학』. 서울: 예장총회 교육부, 1982.
- 프랑수아 방델. 김재성 역, 『칼빈 그의 신학사상의 근원과 발전』.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9.
- Glasser, Arthur F. *Announcing The Kingdom*, 임윤택 역, 『성경에 나타난

- 하나님의 선교』.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6.
- Holtrop, Philip C. 박화석, 이길상 역, 『기독교강요 연구핸드북』.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5.
- Larkin, William J. and Williams, Joel F. *Mission in the Old & New Testaments*, 홍용표, 김성욱 역, 『성경의 선교신학』. 서울: 도서출판 이레서원, 2001.
- 리스, John H. *John Calvin's Doctrine of Christian Life*, 이용원 역, 『칼빈의 삶의 신학』.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6.
- McGavran, Donald A. *Understanding Church Growth*, 전재욱, 이요한, 김종일, 『교회성장이해』.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87.
- _____. *The Bridges of God*, 이광순 역, 『하나님의 선교전략』.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3.
- Niesel, Wilhelm. *Die Theologie Calvins*, 이종성 역, 『칼빈의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3.
- Neighbour, Ralph W. *Where Do We Go from here*, 정진우 역, 『셀교회 지침서』. 서울: 도서출판 NCD, 2000.
- Nicholas, Ron. *Good Things Come In Small Groups*, 신재구 역, 『소그룹 운동과 교회성장』.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1986.
- Pinell, David. *Life In His Body*, 박영철 역, 『셀교회 평신도 지침서』. 서울: 도서출판 NCD, 2005.
- Reid, W. Sranford. *John Calvin His Influence in the Western World*, 홍치모, 이훈영 옮김, 『칼빈이 서양에 끼친 영향』.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3.
- Schwarz, Christians A. *Natural Church Development*, 정진우 역, 『자연적 교회 성장』. 서울: 도서출판 NCD, 1999.
- _____. *Paradigm Shift in the Church*, 임원주 역, 『자연적 교회 성장 패러다임』. 서울: 도서출판 NCD, 2001.
- Stickelberger, Emanuel. *John Calvin*, 박종숙, 이은재 역, 『하나님의 사람 칼빈』. 서울: 도서출판 나단, 1992.
- Wagner, C. Peter. *Church Quake*, 홍용표 역, 『21세기 교회 성장의 지각 변

- 동』.서울: 도서출판 이레서원, 2000.
- _____. *Your Church Can Grow*, 권달천 역, 『교회성장원리』.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0.
- _____ 편저. *Church Growth State of the art*, 이재범 역, 『교회성장학 개론』. 서울: 도서출판 나단, 1987.
- _____. *Changing Church*, 김영우 역, 『신사도적 교회로의 변화』. 서울: 웨키나 출판사, 2006.
- _____. *Toward The 21st Century In Christian Mission*, 홍용표 역, “교회성장신학.” 『선교신학의 21세기 동향』. 서울: 도서출판 이레서원, 2001.
- Wallace, Ronald S. *Calvin, Geneva And The Reformation*, 박성민 역, 『칼빈의 사회 개혁 사상』.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5.
- _____. *John Calvin's Doctrine of Christian Life*, 나용화 역, 『칼빈의 기독교생활 윤리』.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8.
- Weber, Otto. *Die Treve Gottes in der Geschichte der Kirche*, 김영재 역, 『칼빈의 교회관』. 서울: 도서출판 이레서원, 2001.

2. 동양 서적

- 김영동, 『교회를 살리는 선교학』.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3.
- 박건, 『멘토링 사역과 멘토링 목회』. 서울: 나침반, 2006.
- 이광순, 『선교학개론』.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3.
- _____, 『한국 교회의 성장과 저성장』. 서울: 미션아카데미, 2005.
- 최수일, 『간추린 기독교 선교역사』. 서울: 예영 커뮤니케이션, 2003.
- 최윤배, 『The Theology of Calvin』.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신학대학원.

3. 논문

- 게리 맥킨토시. “미국의 교회성장의 과거, 교회성장학자 맥가브란의 사역을 중심으로.” 『월간 교회성장』 (2006.1):24-31.

- _____ . “미국의 교회성장, 어디로 가는가?” 『월간 교회성장』 (2006.1.): 16-23.
- 김인호. “한국 셀교회 운동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의 과제.” 『2005년 셀교회 네트월 컨퍼런스 자료집』 : 7-11.
- 김철용. “일산 풍성한 교회의 셀목회 사례발표,” 『2005년 셀교회 네트월 컨퍼런스 자료집』 : 43-52.
- 박영철. “셀교회의 역사와 본질.” 『2005년 셀교회 네트월 컨퍼런스 자료집』 : 84-92.
- 박보경. “통전적 관점의 교회성장과 전도.” 『선교와 교회성장 2003』 선교신학 7집 (2003. 11): 127-48.
- 에드 스테처, “미 교회성장의 현주소를 진단한다”, 『월간 교회성장』 (2006.1): 38-45.
- 이동원, “셀교회에 대한 기대와 도전,” 『2005년 셀교회 네트월 컨퍼런스 자료집』 : 12-14.
- 홍기영, “교회성장 운동의 역사,” 『선교와 교회성장 2003』 선교신학 7집 (2003. 11): 13-32.
- 이후천, “교회성장운동의 신학,” 『선교와 교회성장 2003』 선교신학 7집 (2003. 11): 33-58.
- 장훈태, “선교신학”, 『최근의 칼빈 연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260-84.
- 최태수, “영적 리더쉽 개발을 통한 교회성장,” 『선교와 교회성장 2003』 선교신학 7집 (2003. 11): 83-100.